



啓聖同窓會報

제 47 호

2008년
3월 10일(월)

교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1

발행인·박성대/편집인·김정길/주간·한학동/편집·정만진, 홍억선, 홍헌득/발행처·계성학교 총동창회/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 259-5 계성빌딩 811호 ☎(053)255-3900
FAX(053)256-4942/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eisung.or.kr/인쇄처·민기획, 홍임호/대구광역시 중구 남산2동 244-17 ☎(053)256-8534, FAX(053)255-7831



2008년도 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

1월 21일, 호텔 인터불고 컨벤션 홀에서 성대히 열려

계성학교 총동창회 2008년도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가 1월 21일(월) 오후 6시 30분 호텔 인터불고 2층 컨벤션 홀에서 열렸다. 당일 행사에는 이상득 국회 부의장의 특강이 계획되어 있어 계성학교 교직원도 함께 초청되었으나 바쁜 국정 때문에 특강이 취소되었다. 행사장에는 27회부터 78회까지의 기수별 테이블과

내빈석 3개 테이블 그리고 교직원용 2개의 테이블을 포함하여 총56개의 테이블이 배치되었고 참석한 연인원은 예약했던 400명을 상회했다.

김정길(56회) 총동창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조준제(47회) 재경동창회장의 개회 선언에 이어 영남신학대 허성균(55회) 목사의 시작 기도가 있었다. 허 목사는 기도에서 “교회를 가슴에 품고 이상과 꿈을 실천하기 위해 세상에 뛰어들었던 동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학교를 사랑하고 지역의 발전과 이 나라를 빛내는 일에 앞장서는 일꾼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몸담고 <2면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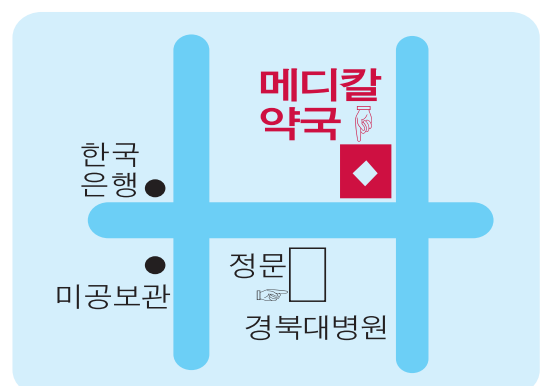


경북대학병원 처방 전문 조제

메디칼약국

代表 尹 淙 鉦 (50회 · 동기회 회장)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2가동 248 TEL:(053)422-4868~9 FAX:(053)423-9780



인사말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고, 그 터전 위에 계성의 새 역사를 씁시다.



친애하는 계성동문 가족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07년이 끝나고 무자년 2008년의 새해가 벌써 두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난해가 기억조차 하기 싫은 한 해일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인생의 큰 전환을 맞아 새로운 발판을 마련한 해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난 일들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 사람이 성장하는데 나름대로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바탕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신년의 시작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지면으로나마 인사를 대신할 수 있게 된 것을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2월에는 앞으로 이 나라를 책임질 대통령을 뽑는 큰 일이 있었습니 다. 이 일의 결과가 우리 계성동문 가

족 여러분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으나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계성의 앞날에 많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정권이 추구했던 정책이 과거의 많은 부분들을 부정하고 개혁이라는 기치 아래 지켜나가야 할 아름다운 전통마저 외면하는 큰 과오를 저질렀고 그 소용돌이 속에 자랑스러운 우리 계성의 운명도 크게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분명히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변해야 하는 것을 저는 압니다. 하지만 과거가 없는 현재가 없고, 현재가 존재하지 않는 미래가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계성은 과거의 찬란했던 역사에 안주하려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교육관으로 인해 손상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려는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모교 개교 100주년을 맞아 우리들이 보여 주었던 그 응집력을 이제는 모교의 참 모습을 되찾는데 쏟아 부어 우리의 손으로 계성의 위상을 다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은 재단과 학교 그리고 동문들 모두가 그토록 바라던 일이며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기필코 해 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지난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계성장학재단을 설립하여 24

억이라는 거금을 모았습시다만 저는 여기서 머물 것이 아니라 2배, 3배 더 거금을 모아 우리 계성이 추구하는 자립형 사립고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장차 2011년이면 모교의 이전이 이루어지며 또한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하여 명실상부한 세계 일류 학교로의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6만 계성동문 여러분!

저는 아직도 계성이라는 이름이 나를 부른다면 그 곳이 어디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옛날의 영광을 이어가는 계성의 모습을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런 감정은 저 뿐만 아니라 여러분 누구나 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까지도 계성은 빛나는 학교가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 새로운 역사에 여러분의 힘이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려는 일이 먼 훗날 계성의 역사에 어떻게 기억하게 될지 비록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합심하여 이를 결과가 우리와 우리의 후배들에게 또 다른 자긍심을 심어 줄 것이라는 생각에는 추호도 의심이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고 그 터전 위에 새로운 계성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다면 비록 다소 늦은 감은 없지만 지

금의 주변 상황은 매우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돌이켜 생각하면 우리 계성이 걸어온 길은 이보다 더한 어려운 경우도 숏하게 많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빛나는 계성이었기에 오늘 우리들은 녹록치 않은 조건에서도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교의 상황에 애정 어린 염려와 관심을 보여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많은 관심과 협조로 우리가 이루고자하는 새로운 100년의 초석을 놓는 일에 함께 동참하여 우리가 지금껏 계성의 이름으로 누렸던 많은 혜택들을 우리 후배들에게도 이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염려 속에 새해가 시작되고 계성인 누구나가 올 한해 나름대로의 계획과 소망을 가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무췌록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빌며 또한 계성의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사랑과 개척정신으로 무장한 많은 계성인이 이 세상에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전파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박 성 대
(38회 · 총동창회장)

“동문 모두 힘을 합쳐 과거의 명성 되찾자”

박성대 총동창회장, 신성택 명예회장 등 힘찬 연설과 건배 제의

있는 가정, 사회, 국가에 정의와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이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훌륭한 후배들이 모교에서 자랄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이 책임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평화를 얻게 하소서”라고 했다.

모교 관악단의 반주로 애국가 제창 이후 이어진 기수별 소개 시간에는 장성훈(23회) 선배, 강석교(27회) 선배를 위시하여 29회 1명, 30회 3명, 36회 6명 등 원로 선배들의 소개에 이어 기수별로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나이 50을 경계로 빠른 기수

에서 참석자가 많았고 사회활동이 왕성한 40대 연령 이후부터 참석자가 다소 적었다. 한편, 수년 전부터 시상해오던 장수 동문상은 이곤환(29회) 선배가 수상했다.

박성대(38회) 총동창회장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 계성학교 동문 여러분! 올해도 건강하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100주년 행사를 치른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총동창회에서는 거금을 모아 장학재단을 설립하였고, 현재 신성택 장학재단 이사장이 잘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의 요청에 즉시 부응하고 있으며 또한 더

많은 장학금의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대로 대통령 당선자가 나오고 하니 올해는 무척 기대가 됩니다. 차제에 명문 계성을 다시 살리기 위해 협력과 노력을 기울여 하지 말고 학교 당국도 함께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변화를 위해 회의 장소도 호텔 인터볼고로 옮겼고 사랑스러운 모교 관악부의 반주로 부탁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힘을 합쳐 과거의 명성, 잃어버린 10년을 다시 찾읍시다.”하며 예의 그 열정을 담은 목소리로 힘찬 박수를 유도했다.

또한 신성택(45회) 명예회장은 참석자들에게 “새해 세우신 꿈을 이루기를 빕니다. 장학재단은 최선을 다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큰 뜻을 세운 동문들을 돌아보고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하고 짧게 인사했다.

한편, 김태동 재단 이사장은 “이번 정권 교체의 국민선택으로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정기를 맞은 국운과 같이 계성학교의 미래도 밝을 것입니다. 변화에 적극 동참하여 계성학교도 변할 것이며 우리의 목표인 자립형 사립고를 위해, 앞으로의 계성 100년, 1000년의 영광을 위해 동창회에서 힘을 합해주시나



▲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위해 “일동 건배”

면 하나님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 다른 우리의 목표는 대통령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라의 일꾼을 키우는데 마음을 모으는 뜻으로 박수를 보내 주십시오.”라고 말하며 ‘문치자, 싸우자, 이기자’를 제안해 모두들 힘차게 따라 외쳤고, 김석준(56회, 국회의원) 의원은 “동창회와 모교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성대, 신성택 두 회장님, 김태동 이사장님, 고등학교 정인표(56회) 교장과 중학교 손용식(60회) 교장을 위시한 교직원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며 인사를 대신했다.

2부 순서에서 업무 및 경과보고는 김정길(56회) 총동창회 사무국장이 참석자들의 동의를 얻어 유인물로 대신했고 김덕수(50회) 업무감사와 이진복(69회) 회계감사의 감사보고에 이어 2007년도 결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 심의가 있었는데 모두 원안대로 통과 되었다.

김정길 사무국장은 총동창회 회보가 구독료 미납으로 결손이 크다고 보고하고 동창회보 구독 및 구독료 납부에 적극 협조해줄 것과 동창회 협찬금은 가능한 연초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김병호(64회) 마산창신대 음악과교수)동문의 독창과 창신대 교수(남성 3명, 여성 3명)로 구성된 창신싱어즈의 중창이 이어져 딱딱하던 분위기가 부드럽게 바뀌었고 케익 절단과 내빈들의 건배 제의에 이어 식사가 시작되면서 연회가 무르익었다.

행사가 시작될 시간만 해도 여기저기 들성들성하던 테이블이 마치는 시간이 되자 빈자리 없이 거의 메워져 2008년 총동창회에 대한 기대가 예년에 못지않음을 보여 주었다.

글 · 한학동(64회)



▲ 김병호(64회) 교수가 이끄는 마산 창신대학교 창신싱어즈 중창단.

계성 가족 연찬회

2월 19일, 호텔 인터불고에서 성대한 계성 가족 연찬회

“오늘 같은 자리는 계성 100년 역사에 처음 있는 일” - 참석자들 한 목소리

계성학교 총동창회가 법인 산하 계성 가족들을 초대하는 계성 유·초·중·고·법인·총동창회장단 가족연찬회가 2008년 2월 19일 오후 6시 호텔 인터불고에서 열렸다. 당일 오후 6시가 가까워지자 250여명의 계성가족들은 모교 관악부가 연주하는 음악을 쫓아 호텔 내 컨벤션센터로 속속 모이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자리가 참석자들로 채워지고 정해진 시간이 되자 총동창회 김정길(56회) 사무국장이 개회를 알리면서 이날의 연찬회가 시작되었다.

시작 기도를 맡은 이병구(53회) 부회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주신 비전과 사명을 깨닫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빠른 변화에도 염려하지 않는 큰 믿음의 계성이 되어 글로벌 시대에 맞는 인재를 배출하게 도와 주시고 기독교 교육의 선한 목적을 이룰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하며 참석자들에게 이날 행사의 의미를 전하였다.

박성대 총동창회장은 “반갑습니다. 사모님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분위기가 따뜻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사모님들을 위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며 참석자들의 박수를 유도한 후 “법인, 학교, 동창회가 일심동체가 되어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려웠던

환경들이 바뀌고 새로운 경제, 문화, 교육이 기대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며 여기에 계성가족들의 내조가 더해진다면 잃었던 계성의 위상을 반드시 회복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늘 사모님들을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모임을 주선할 수 있어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이병구 부회장이 동창회를 위해 앞으로 많은 일을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의 비용도 이병구 부회장이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하고 인사말을 했다.

학교법인 김태동 이사장은 “새시대를 맞이해서 과거 계성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계성 가족을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박성대 총동창회장이 주선하고 이병구 부회장이 후원했습니다. 이 두 분을 위해 모두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며 시작한 축사에서 “계성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동창회 장학금을 24억원이나 마련하고 또한 오늘 같은 자리를 마련한 것은 계성 100년 역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21세기를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만 키워질 수 있습니다. 이 기회에 역사를 통해 거듭나는 기회로 삼아야겠습니다. 기회는 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잡지 않으면 언제 또 오겠습니까? 계성의 영광을 찾기 위해 피 흘리는 노력이 필



▲ 박성대 회장 부부, 김태동 이사장 부부, 정인표 고등학교장 부부가 함께 케익절단.

요한 때입니다. 우리 재단은 세계에서 일류가 되는 학교(시설)를 만들기 위해 20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선생님들도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사모님들께서도 선생님들의 변화에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기에다가 장학금이 더 많이 만들어 지고 재단과 선생님 과 동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일한다면 하느님께서도 도와주실 것이 확실합니다. 이 모임이 계성학교의 영광을 찾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라고 했다.

한편 정인표(56회) 계성고등학교 교장은 “우리 계성은 지난 100여 년 동안 훌륭한 선배님들의 희생적인 노력 덕분에 온 세계에 계성을 명성을 떨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평준화 정책으로 인하여 그 명성이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자립형 사립학교법이 발표되면 대구에서 제일 먼저 자립형 학교를 유지할 것을 약속하신 김태동 재단이 이사장님과 이른 새벽부터 동문들을 찾아가서 장학금을 모금해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장학재단을 설립 하였고, 선생님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 오늘 이 자리도 마련해 주신 박성대 총동창회장님 이 두 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우리 모두 지난 100년에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100년을 위해 다짐과 결심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학교의

일이 중요해도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제대로 해 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목한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고 말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창신대 성악전공 교수로 이루어진 창신 싱어즈의 축배의 노래, 경북궁 타령, 우정의 노래가 이어져 격조 높은 분위기를 자아내었으며 축가 후에는 모두가 함께 일어서서 교가를 제창하며 계성의 영광을 기원했다.

2부 순서가 시작되자 박성대 총동창회장 부부, 김태동 법인 이사장 부부, 정인표 계성고등학교장 부부가 함께 케익을 절단하고 건배 제의가 이어졌는데 조준제(47회) 재경동창회장은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길 빌며 계성, 계성, 계성을 외쳤고, 법인 박용규(44회) 이사는 계성 발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기원했으며, 계성중학교 손용식(60회) 교장은 세계 제1 계성의 영광을 위하여 건배 제의를 했다.

건배 제의에 따라 한층 밝고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 현악 4중주단의 연주가 흐르는 가운데 식사가 제공되자 동문들과 교직원, 재단 관계자들은 테이블에 앉은 채로 혹은, 여기저기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대화를 나누는 등 즐겁게 연찬회의 마지막 순서를 보냈다. 이날 연찬회는 만찬을 끝으로 오후 7시 40분에 막을 내렸다.

글 · 김원일(65회)



▲ 호텔 인터불고 컨벤션센터의 계성 가족들.



현대자동차

“계성학교 동문 우대”

계명대리점

소장 정 봉 남 (64회 · 동기회 회장)

H.P : 011-502-2100

704-920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321-84
(성서계대 사거리에서 시내방향 200m)

TEL : (053)583-1100 FAX : (053)583-2885

| 재정 계성동창회 스케치 |

재정 동창회 '송년의 밤' 행사 열어



재정 계성 가족 송년 모임이 12월 11일 강남구 선릉역의 상제리제 뷔페에서 열렸다. 처음으로 준비된 송년 모임이어서 인지 40회 이전의 선배들께서 이른 걸음으로 행사장에 도착하셨고, 시작 시간인 7시 이전에 준비한 200석의 자리가 가득 찼다.

이규동(31회) 대선배, 박성대 총동창회장, 김태동 재단 이사장과 정인표 교장선생, 김석준 의원 그리고 각계에서 훌륭한 동문들이 함께 자리 하였다.

조준제 재정동창회장은 처음 개최한 재정 가족의 잔치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주셔서 감사의 뜻을 전함과 아울러 앞으로의 100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전 계성 가족의 화합을 부탁하는 인사에 이어 총동창회장의 우렁찬 축사는 항상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하였다.

재단 이사장의 축사에 이어 함께 케익을 자르고 축배를 들며 시작된 축제는 서울대 음대 출신의 성기훈(61회), 방성욱(70회) 동문의 수준 높은 축가로 분위기가 무르익어 갔으며, 재즈 밴드의 감미로운 음악이 흥을 돋구며 함께 만찬으로 이어졌다. 이어진 동문들의 장기 자랑에는

맛깔난 사회자의 진행과 함께 여러 동문들의 참가로 여흥의 즐거움은 더해 갔으며 간간히 함께 하여준 동문 가족들의 끼도 엿볼 수 있었다.

조준제 재정동창회장이 사모와 함께 보여준 SPORTS DANCE는 아직 젊음을 간직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막간에 이어진 행운권 추첨에는 윤동한(52회) 동문, 이병구(53회) 동문, 이인식(56회) 동문, 조선래(64회) 동문 등 여러 동문께서 협찬 해 주신 푸짐한 선물이 안겨짐에 탄성과 함께 즐거움이 깊어갔다. 짧은 시간에 아쉬움을 간직하며 한해를 돌아보는 숙연한 시간에는 모두 조용히 지난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해를 설계하였으며, 함께 힘차게 부르는 교가를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처음 가져본 송년의 밤이었으나 3시간여에 걸친 시간 중 계속된 매끄러운 진행과 참석한 동문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모두들 매우 좋았다는 반응이었다.

내년에도 다시 한번 좋은 만남을 준비 하겠으며 함께 하여주시는 많은 동문과 협조 하여주시는 모든 동문에게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08년도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

2008년 한해를 시작하는 재정 계성 동창회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를 1월 28일 강남구 선릉역의 상제리제 뷔페에서 가졌다.

무자년 한 해에 모든 재정 계성 가족들의 건강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하나 하나 잘 영글어 가시기를 서로 빌어주면서 맞잡은 손에 따스함이 배어 나왔다.

5시에 시작된 이사회에서는 지난해의 살림을 경과보고와 회계보고로 나누어 세세히 보고 드리고 2008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7시로 예정된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에는 지난 연

말에 성대히 개최된 송년의 밤 행사의 영향인지 생각보다 다소 적은 인원이 참가하였으나 각 기별 회장단은 참가하였으며, 박성대 총동창회 회장님과 원로 선배님 그리고 여러 동문들이 자리하여 주셨다.

조준제 재정동창회장은 2007년 계성 가족 체육대회와 처음 준비하였던 송년의 밤 행사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동문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모든 동문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에 재정 동창회가 준비된 행사 및 여러 행사를 성황리에 마치고도 여유 있는 재정을 유지할 수 있었음을 강조하고 올 한해에도 회장 이하 회장단에서 각 산하 단체의 지원을 통

하여 활성화를 이루며 열심히 봉사함을 약속 하셨다. 박성대 총동창회장께서도 장학회 등 여러 행사에 총동창회장을 보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조준제 재정 회장을 중심으로 재정 동창회의 건승을 빌어 주었다.

제반 비용 및 회비 수입이 적절히 이루어 졌음을 감사하여 주셨으며, 2008년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저희 재정 동창회 회장단 및 사무국은 2008년에도 최선을 다하여 재정 가족들의 화합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 하겠다.

글 · 이응재(64회)

박성대 총동창회장 초청, 윤동한(52회) 한국콜마 회장과 조영주(60회) KTF 사장
전경련 'IMI 경영대상' 수상 축하연

박성대 총동창회장 초청으로 지난 2월 18일 서울 신라호텔 한식당 팔선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영원(IMI)이 수여하는 '2008년 IMI 경영대상'을 받은 윤동한(52회) 한국콜마 회장과 조영주(60회) KTF 사장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오찬모임행사를 가졌다.

이날 축하오찬모임에 총동창회 이병구(53회) 부회장, 조준제 재정회장, 김정길 사무국장, 계성학원 김태동 이사장, 김원일 사무국장이 함께 참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IMI는 1월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IMI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윤 회장과 조 사장을 포함해 경영자 8명에게 경영대상을 수여했다.

2008년 IMI(원장 이윤호) 경영대상은 기술혁신, 글로벌 경쟁력, 지식경영, 사회공헌 등 4개 분야에서 수상자를 선정했으

며, 윤 회장과 조 사장은 기술혁신 부문에서 경영대상을 받았다.

한국콜마는 화장품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을 화장품시장에 정착시키고, 화장품 ODM이라는 시스템을 업계 처음으로 도입하여 ODM(Original Development & Design Manufacturing / 자체개발 주문생산)의 새 역사를 만들며 화장품 업계의 기초과학분야를 튼튼하고 건설하게 뿌리내리게 한 대표기업으로 대한민국 700여 개의 상장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OEM 방식이 수탁생산 개념으로써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단계에서 그쳤다면, ODM은 독자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상품기획에서 개발, 생산, 품질관리 및 출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토털 서비스를 실현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콜마는 이러한 ODM 시스템의 실현을 통해 고객들에게 신뢰받는 연구개발,

제조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KTF 조영주 사장은 과감한 차세대 통신 연구개발과 투자를 통해 글로벌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하고, 특히 세계 최초로 3.5세대 전국 서비스인 'SHOW'를 개시하는 등 한국 IT의 위상을 드높였고, 2005년 7월 KTF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2007년 3월에 출시한 SHOW를 앞세워 이동통신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동문들의 뜨거운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동참해 주신 동문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6만 동문 모두가 10구좌(100,000원) 이상 출연하여 모교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고 그 이름을 글로벌화 하는데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해 주신분께 감사드립니다.

장학기금 납부자

(2007. 11. 1 ~ 2008. 2. 25까지 입금 내역임) (단위 : 원)

성명	기수	납입금액	성명	기수	납입금액
김준호	71	500,000	장준영	64	100,000
장성훈	23	100,000	허인태	64	100,000
김재봉	40	100,000	김성광	47	20,000
허종중	40	100,000	55회 동기회		2,000,000
이무호	42	100,000	69회 동기회		10,000,000
신충권	57	100,000	울진지부		100,000
총합계		13,320,000			

100주년 사업 부담금

(단위 : 원)

기수	납입금액	기수	납입금액	기수	납입금액
27		48	500,000	69	1,000,000
28		49	500,000	70	1,000,000
29		50	500,000	71	1,000,000
30		51	500,000	72	1,000,000
31	100,000	52	1,000,000	73	1,000,000
32	100,000	53	1,000,000	74	500,000
33	100,000	54	1,000,000	75	500,000
34		55	1,000,000	76	
35	100,000	56	1,000,000	77	
36	100,000	57	1,000,000	78	
37		58	1,000,000	부산지부	3,000,000
38	100,000	59	1,000,000	울산지부	3,000,000
39	100,000	60	1,000,000	시카고지부	500,000
40	200,000	61	1,000,000	뉴질랜드지부	500,000
41	300,000	62	1,000,000	구미지부	500,000
42		63	1,000,000	울진지부	300,000
43	300,000	64	1,000,000	인천지부	1,000,000
44	300,000	65	1,000,000	안동지부	1,000,000
45	300,000	66	1,000,000	서울지부	10,000,000
46	300,000	67	1,000,000	칠곡지부	300,000
47	500,000	68	1,000,000		
총합계		48,000,000			

회보구독료 납부자

(2007. 11. 1 ~ 2008. 2. 25까지 입금내역임)

▷ 100,000원

신동욱(37회), 김뢰성(39회), 유청웅(48회), 장현택(50회), 김실봉(59회), 김재희(60회) 정유진(71회)

▷ 50,000원

장기홍(39회), 구완현(41회), 김현호(43회), 최태룡(46회), 김대원(51회), 이원동(53회) 손수상(54회), 이종완(64회)

▷ 30,000원

김금식(41회), 김상흠(51회), 노병달(52회), 정갑진(54회), 하제대(55회), 이성하(57회) 이경석(57회), 신충권(57회), 원태석(60회), 구자열(60회), 류권열(62회), 여인성(71회) 무명 2명

▷ 20,000원

이주국(31회), 김상규(38회), 이용세(42회), 조석제(45회), 김희규(47회), 이영래(50회) 노태교(51회), 손영대(55회), 박대순(56회), 송호달(57회), 이희권(57회), 예병렬(57회) 김한수(60회), 이선우(60회), 장태진(63회), 임종익(63회), 황규재(63회), 정봉남(64회) 장기훈(65회), 김병국(68회), 조영석(69회), 윤상영(69회)

▷ 10,000원

장성훈(23회), 김상기(36회), 이승하(36회), 허동원(39회), 김만식(39회), 서정원(39회) 이영목(40회), 김재봉(40회), 허종중(40회), 김상도(40회), 박영식(40회), 박준식(40회) 임종해(40회), 최충락(41회), 김태창(41회), 김세만(42회), 최기웅(45회), 임대현(46회) 이중우(47회), 김성광(47회), 김태근(51회), 김성식(51회), 박세진(51회), 이원희(51회) 장영대(52회), 박진영(53회), 안일준(53회), 김규상(54회), 홍종길(54회), 이민수(54회) 서보정(54회), 이광준(54회), 김종윤(54회), 김대진(56회), 배종빈(57회), 우장수(58회) 유대근(58회), 최홍식(59회), 김효종(60회), 정성화(60회), 장성국(60회), 임경국(60회) 이정우(60회), 김정업(61회), 임봉노(63회), 최재경(63회), 김병윤(65회), 유태호(65회) 박덕수(65회), 장영형(68회), 고종수(71회), 백길영(80회), 권혁태(82회), 무명 2명

계106건 2,510,000원(누계:25,355,000원) ※흑 착오 있으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회보 구독료를 보내주신 동문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더욱 더 발전하는 동창회보가 될 수 있게 동문들의 정성을 기다리겠습니다.

장학기금 및 회보 구독료 기별 납입금 내역

(2004. 8. 1 ~ 2008. 2. 25까지 입금 내역임) (단위 : 원)

기별	장 학 금			회 보 구 독 료	
	기별부담금	개 인	인원	금 액	인원
23		600,000	6	80,000	6
26				50,000	1
27		5,000,000	1		
29	300,000	1,000,000	1	30,240	3
30	300,000	200,000	2		
31	1,000,000	200,000	2	50,000	3
32	300,000	300,000	1	40,000	2
33	1,500,000	300,000	2	10,000	1
35	200,000	150,100,000	2	170,000	7
36	300,000	100,000	1	180,000	16
37		15,100,000	2	360,000	8
38	1,600,000	36,600,000	9	100,000	7
39	1,000,000	900,000	4	1,010,000	54
40		7,800,000	13	450,000	21
41	5,000,000	11,245,000	5	260,000	12
42	5,000,000	16,700,000	14	490,000	25
43	5,000,000	4,400,000	16	250,000	6
44	5,000,000	27,930,000	28	1,010,000	42
45	7,000,000	48,930,000	16	710,000	34
46	7,000,000	8,700,000	15	380,000	26
47	7,000,000	42,070,000	12	470,000	26
48	7,000,000	1,750,000	7	370,000	11
49	7,000,000	12,150,000	14	580,000	21
50	10,000,000	51,800,000	9	1,040,000	31
51	10,000,000	21,900,000	9	1,150,000	77
52	10,000,000	142,300,000	25	1,260,000	54
53	10,000,000	115,200,000	20	1,220,000	68
54	10,000,000	3,350,000	12	1,270,000	78
55	8,000,000	2,610,000	14	650,000	39
56	10,000,000	69,330,000	21	1,330,000	66
57	10,000,000	580,000	5	930,000	52
58	10,000,000	13,860,000	14	910,000	33
59	10,000,000	1,150,000	7	760,000	34
60	10,000,000	10,220,000	21	1,320,000	77
61	10,000,000	3,210,000	4	390,000	27
62	10,000,000	400,000	4	480,000	19
63	10,000,000	1,620,000	8	750,000	54
64	10,000,000	12,780,000	18	1,000,000	53
65	10,000,000	300,000	3	450,000	28
66		1,000,000	6	330,000	21
67		100,000	1	180,000	7
68	10,000,000	600,000	4	500,000	36
69	10,000,000	650,000	8	560,000	28
70	7,000,000	300,000	4	120,000	6
71	7,000,000	1,120,000	9	520,000	31
72		240,000	1	100,000	8
73		130,000	2	140,000	9
74	7,000,000	200,000	3	60,000	4
75				60,000	3
76				10,000	1
78		50,000	1	20,000	2
79					
80				10,000	1
81					
82				10,000	1
원주지부		400,000	13		
고령지부		300,000			
재천지부		400,000			
포항지부		3,000,000			
영천지부		1,000,000			
시카고지부		2,000,000			
구미지부		500,000			
영덕지부		500,000			
경주지부		1,000,000			
울진지부		100,000		30,000	
무명		140,000	3	745,000	41
계	260,500,000	856,415,000	425	25,355,000	1,323

“계성 총동문 체육대회는 우리 44회의 작품이야”

신년교례회, 체육대회 등 계성 행사에 가장 많이 참석하는 기수, 우정의 44회

“인촌, 어서 오게.”
“아이고, 인수위원장 아니신가.”
44회의 모임에 취재차 동석한 우리(김정길 총동창회 사무국장, 정만진 동창회보 기자)는 선배들께서 주고받는 인사를 들으며 고개를 가우뚱할 수밖에 없었다.

인촌이라면 고려대학교 설립자인 김성수 선생을 말하고, 그 분이 살아계신다면 연세가 120세가 될 터인데 계성 44회일이 없지 않나? 그리고 인수위원장이란 면 숙명여대 총장인 여성인데 우리 계성이 옛날에도 공학이었던가? 계성과 신명은 따로따로 개교를 하여 각각 100년 세월을 넘긴 전통 명문인데 신명 아닌 계성에도 여학생이 다녔단 말인가?

알고 보니, “인촌 선생”으로 불리는 선배는 민족운동가 인촌 김성수 선생과 동명이인이시고, “인수위원장”으로 호칭된 선배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고려대 상대 3년 선배로 대학을 같이 다닌데다 학과도 같고, 유난히 친분도 두텁다 하여 동기들끼리 그렇게 부른다는 것.

“우리 44회는 계성 총동창회 신년교례회를 할 때나 체육대회를 할 때나 모든 계성 행사에 어느 기수보다도 더 많이 참석

다. 고령인 44회 선배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우의를 다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후배들이 본받아야 할 부분이다. 44회가 보여주는 최고의 결속력을 본받자는 말이다.

학교에 다니던 무렵이 전쟁 중이었던 관계로 44회는 무지막지한 고생을 겪는다. 학교 건물에서 수업을 받지 못하고(학교 건물은 군대가 점수하여 사용했기 때문) 군용 막사를 운동장에 지어놓고 거기서 수업을 받았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난로는 없었고, 사방으로 북풍한설이 뚫고 들어와 온몸을 얼음처럼 차갑게 냉동시켰다. 여름에는 바다에 물이 흥건하게 들어차 책상과 결상이 동동 떠서 다녔다.

운동장만이 아니라 제일교회, 신명학교의 선교사 사택, 언덕비탈도 하나같이 당시 계성학교 학생들의 교실로 사용되었다. 선교사 사택도 궁핍한 재정 때문에 유리창이 다 깨어진 상태였으므로 출기는 마찬가지로였다. 동기들 중에는 군에 입대하여 전쟁에 참가한 경우도 많았는데 어떤 날은 권총을 차고 학교로 찾아오는 친구도 있어 학교에 남아 있는 벗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기도 했다.

가장 재미있는 일화는 아마도 다음의 사



▲ 44회 동기회가 모임을 하고 있다. 아래 사진은 일부 회원들이 식당의 마당에 상을 펼쳐 식사를 하고 있는 광경. 너무 많은 동기들이 참석한 탓에 빚어진 일이다.

음악 주당 3시간…… 예체능 교육 힘쓴 모교에 감사 전쟁 중에도 시민회관에서 신명과 합동 음악 발표회

하는 애교 정신으로 충만하다는 사실을 꼭 말하고 싶군.”

“우리 44회가 계성장학금 모금에도 가장 많은 인원이 동참하였다는 사실도 빼놓을 수 없지.”

“우리 44회가 바로 아래 후배들인 45회, 46회, 47회를 두루 모아 배구대회를 열었는데, 그것이 점점 커지고 내용도 다양해져서 마침내 요즘 해마다 성황리에 열리는 총동문 체육대회로 발전을 했다. 이것 하나만 봐도 우리 44회의 열성은 짐작하고도 남지.”

“우리가 나이 70을 넘겼지만 이렇게 동기들이 모임 때면 항상 북적거릴 만큼 다수가 참가를 하지. 이보게, 오늘도 너무 많이 와서 식당이 넘치지 않나.”

정말 참가자가 밀려들어 방이 길다란 직사각형인데도 다 앉지를 못해 일부 동기들은 마당에 별도의 탁자를 놓고 식사를 하신다. 정이 넘치고, 애교정신이 투철하다는 이야기이다. 몇 분이 오셨나 해아려보니 얼핏 보아도 스물네댓 분이 넘어보인

건이 아닐까 여겨진다. 일화? 당시의 고통을 겪은 당사자들로서는 결코 일화도 아니고, 재미있는 추억도 아니겠지만, 전쟁의 소용돌이를 직접 체험하지 않은 후배들로서는 저절로 웃음이 터져나오는 사건이니, 외람되지만 일화라 이름 붙여본다. 사건은 이렇다.

모 동문은 본래 43회로 입학의 하였지만 전쟁이 나서 학도병으로 입대를 했다. 전쟁이 끝난 뒤 학교로 와서 복학 신청을 했더니 ‘사망’으로 처리되어 있어 복학 불가 판정이 나왔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다시 입학시험을 치고 신입생이 되었다. 그 덕분에 44회와 같이 학교를 다녔고, 지금도 44회 모임에 참석한다. 물론 43회 모임에도 나간다. 이 어찌 우습고 재미있는 사건이 아니라!

교사들에 대한 추억도 대단하다. “우리는 전국 최고 수준의 선생님들에게 배웠어. 지금도 선생님들 한분 한분의 독특한 가르침과 어투가 기억 나. 이극찬, 차기백,

김만복, 노명식…….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학자들 아닌가.” 지금 대학생들도 면학열이 높고 독서를 많이 하는 모범생이라면 정치학, 서양사, 음악에서 이 분들의 저서를 탐독하고 있으리라. 당시 재단에서는 공립학교 교사에 비해 2배가 넘는 봉급을 제공하면서 우수교사를 확보하였다고 한다. 교육법 개정으로 학제가 변경되었을 때 계성은 전국 최초로 인가를 받았다(1950년 4월 26일).

“오피이, 신포이” 이야기가 이어진다. ‘-피이’는 유도의 검은 띠(유단자 표시), 흰 띠를 말하는데 유도 고단자인 선생님들의 성만 따고 그 뒤에 ‘띠’를 붙여 그렇게 별명을 만들어서 불렀다는 이야기이다. 그건 그렇고, 선생님들에 대한 칭찬만 이어지는 것보다는 그 반대성 화제도 나와야 더 흥미진진한 법이다. 아니나 다를까, 동창회보에 실명을 기재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난날의 에피소드 하나를 도마에 올리신다.(비보도=오프레코드, 그래서 이번 44회 탐방기에는 등장인물의 모든 실명을 생략한다. 누구는 실명을 넣고 누구는 넣지 않으면 오히려 불공평하기 때문이다.)

어떤 선생님은 체조를 하면서 한 시간 내내 한 동작만 반복시켰다. 이런저런 동작을 돌아가며 해야 몸도 풀리고 지겹지도 않는데, 그것도 본 수업에는 들어가지 않고 45분 내내 동일 동작만 반복했으니 학생들이 비명을 질렀을 것은 자명하다. 하품과 소란에다가, 동작을 제대로 안 취하기도 하고 수업은 엉망진창이었다.

그로부터 55년 이상 경과한 2008년 2월

15일, 44회 동기들은 그 선생님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 “그 선생님은 그 동작밖에 몰랐던 거야.”하고 의견의 일치를 본다. 이만하면 선생님에 대한 홍보기의 최고봉이라 할 만하다. 물론 악의는 아니다. 44회에는 교장 선생님을 역임하신 동기들이 다수 포진해 계신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가, “우리는 대학을 졸업한 뒤 교사가 되었을 때 어릴적에 배운 계성학교 선생님들처럼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쳐야지 하고 다짐을 했어.” 하시며 모교의 스승에 대한 상찬으로 마무리를 맺는다.

전시의 학교 일지를 일부만 들여다본다. <1951년 10월 10일 개교기념 수양회(4일간), 11월 29일 천막 교사 준공, 1952년 2월 26일 전교생 눈싸움 대회(대명동 화장장 부근), 6월 12일 전교생 보리베기 근로동원, 9월 5일 뇌염으로 중학교 임시휴교(20일간), 10월 24일 고3 경주 수학여행, 12월 3일 내한(耐寒) 마라톤 대회(성당못 왕복), 12월 10일 전교생 눈싸움 대회, 1953년 3월 3일 고려대 입시장으로 본교 사용, 6월 12일 계성 신명 합동 음악회, 6월 24일 휴전 반대 쫓기대회, 7월 15일 프린스턴 신학교 합창단 내교 공연……>

전쟁 중인데도 평상시와 같은 학사들도 진행된 경우가 눈에 띈다.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는 음악 수업이 주당 3시간이었어. 음악, 미술, 문학, 체육……. 우리 계성인의 따뜻한 마음씨는 모교가 예체능 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준 덕분이야.” 44회 선배님들의 회고담은 그칠 줄을 모른다.

글 · 정만진(61회)



▲ 총동창회장의 공로패를 수상하고 있는 이 준 동문.

64회 교복입고 경주서 '졸업 30주년 기념 은사의 밤'

지난해 11월 24일(토)과 25일(일) 양일간 경주 힐튼 호텔에서 64회 동기가 졸업 30주년을 기념하는 은사의 밤 행사를 가졌다. 행사는 대구와 서울에서 각각 출발한 버스가 도착하고 개별적으로 행사장에 도착한 64회 동문들이 행사장인 호텔 1층 그랜드볼룸 대부분을 메운 24일 오후 5시 30분 신라문화원 부설 국악실내악단 『가람』의 50분간에 걸친 식전 행사가 연주 되면서 시작되었다. 가람은 아리랑을 비롯한 7곡을 연주한 후 계성학교 교가를 국악연주로 들려주며 다함께 교가를 부르는 시간으로 연주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오후 6시 30분이 되자 사회를 맡은 경주 서라벌대학 관광일어과 김일룡 교수의 시작멘트에 따라 2명의 도우미와 함께 재학 시절의 교복 차림에 선도와 주변 완장을 차고 64회 동기기회를 든 30여명의 제자들을 앞세우고, 생존하는 3학년 시절 담임선생님 9명이 입장하면서 1부 행사가 시작되었다. 은사들의 입장이 완료되자 64회 초대 동기기장 김규광 동문의 개회 선언에 이어 대구 동산교회 장로로 임직 중이며 영남대학교 의료원 내과 교수로 재직 중인 이충기 동문의 시작 기도가 있었다. 이 동문은 기도에서 '우리가 이 만남을 통해 서로를 더욱 아끼며 살아감은 물론, 이제는 교만하지 않은 자세로 세상을 돌아보고 주님이 걸어간 길을 따라 봉사하며 살아가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라며 계성64회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서 직전 동기기장인 조권섭 동문이 고교 시절의 에피소드를 곁들여 은사님을 한분 한분 소개하자 예약했던 190석을 훨씬 넘어 전체 250석을 가득채운 64회 동문들은 감회가 새로운 듯 환호를 외치며 선생님들을 열렬히 환영했다. 내빈 소개에 이어 64회 동기기장 송창동 동문은 '오랫동안 준비했지만 막상 이렇게 많은 동기들이 함께 할 수 있어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동기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합니다.'며 인사말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총동창회를 대표하여 김석준(56회 국회의원)총동창회부회장과 김정길(56회)총동창회 사무국장이 참석하여 64회 97년동기기장 손병갑, 98년동기기장 손중배, 07년 재경동기기장 이동걸 동문에게 각각 공로패를 수여하였다. 김석준의원은 '오늘 행사를 보니 과연 계성이 세계 제1의 학교라는 것이 실감납니다. 64회가 이런 힘을 모아 총동창회의 발전에도 힘을 쏟아 주었으면



▲ 첨성대 앞에서 부인들과 함께 찰칵!

더욱 좋겠습니다.' 하고 축사를 했다. 또한 은사를 대표하여 김종선(영어, 계명대학교 명예교수)선생이 축사를 했다.

최혁준 동문의 축시낭독에 이어진 영상 편지에서는 멀리 영국에서, 서울에서 참석하지 못한 동문들의 인사가 화면을 통해 소개되었고 미국에서 온 편지도 소개되었다. 또한 창신대학 음악과 교수 김병호 동문의 축가가 연주되고 난 뒤 은사님들을 단상에 모시고 64회 동문들이 준비한 선물 증정과 함께 참석한 64회 동문 모두가 함께 '선생님 건강하세요'라고 3번이나 인사를 한 것을 끝으로 1부 행사가 끝나고 이어 2부 만찬 행사가 있었다.

송창동 64회 동기기장, 이동걸 64회 재경동기기장, 전병직 선생, 김석준 의원이 케익 커팅을 하자 2002년 모교 방문추진 위원장인 김국영 동문이 건배 제의를 하며 2부 만찬이 이어졌다. 만찬이 진행되는 동안 2개의 대형 스크린에는 64회 동문들의 재학 시절 사진과 64회 동우회 사진 그리고 64회 동문들의 근황을 담은 영상이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었다.

8시 30분이 되자 64회 김두용 동문이 이끄는 『김두용과 Peoples』가 '호텔 캘리포니아'를 시작으로 20여 분간 7080 노래

를 연주하자 이 날 3부 사회를 맡은 방우정이 팡파르와 함께 3부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퀴즈를 통해서 '비아그라'를 포함한 많은 상품이 쏟아지자 동문 부인들은 몸을 사리지 않고 퀴즈 맞히기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기도 했다. 퀴즈의 열기가 행사를 뒤덮자 사회자는 후배동문 자녀(소프라노)의 축가를 청하여 분위기를 다시 정비하였고, 퀴즈 중간 중간 장기자랑 시간에 지역별 대표들이 나와 노래를 하자 장내는 소동을 한 후 주최 측에서 미리 준비한 야광봉을 흔들며 한 목소리로 합창을 해 모든 사람들이 마치 콘서트에 온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듯 했다.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하자 집행부와 각 지역 대표들은 무대 앞에 나와 어깨동무를 하고 합창을 하기도 했고, 음악에 맞춰 한 때 고고장을 주름잡았던 춤 솜씨도 보여주었다. 이렇게 흥겨운 시간이 지나고 행운권 추첨이 있고 난 뒤 모교에 근무하는 한학동 동문의 에필로그가 낭독되자 들뜨기만 했던 분위기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으로 바뀌고, 사회자는 모두가 앞사람 어깨에 손을 얹고 하나의 열차를 만들어 홀 전체를 크게 원을 그리며 도는 열차놀이를 제안했고 서너번의 열차 행렬에 이어 교가 제창으로 3부 행사를 마쳤다.

3부 행사가 끝이 나자 참석자들은 첫날 행사의 흥분을 안고 주최 측이 준비한 70여개의 배정된 객실로 향했고 미처 열기를 다 식히지 못한 동문들은 10개의 대형 룰에 모여 술잔을 기울이며 못다 한 얘기를 나누었다.

25일 아침 호텔 뷔페에서 식사를 마친 64회 동문들은 9시가 되자 2대의 버스와 개인 승용차에 나누어 타고 경주 일원 문화 유적답사를 시작했다. 가장 먼저 불국사 옆에 올해 개관한 동리·목월 기념관을 찾았다. 이 기념관은 경주 출신의 소설가 김동리와 시인 박목월을 기념하기 위해 2007년 개원한 곳으로 64회가 방문하자 기념관측에서는 아직 홍보가 널리 되지 않은 곳을 많은 인원들이 방문하자 적지 놀라는 눈치였다. 그러나 두 분이 계성을 졸업한 선배라는 말을 듣고 나서야 이해

를 했다. 바쁜 일정 때문에 계획만큼 자세히 둘러보지는 못했지만 영상을 통해 두 문인의 발자취를 더듬어 본 후 64회 동문들은 자랑스러운 선배로 인해 계성의 자부심을 느꼈고 동행한 부인들은 계성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되었다.

경주 최씨 고택을 거쳐 계림과 첨성대를 보고 난 뒤 대릉원(천마총)을 향해 교복을 입고 걸어가는 동안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신기하다는 듯 쳐다보았고 미처 교복을 입지 못한 동문들은 다른 동문의 교복을 빌려 입고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다.

한편 대릉원에는 마침 순천 매산고 졸업생들도 졸업 30주년을 기념하여 경주로 수학여행을 왔었는데 교복을 입은 남녀 공학인 매산고 졸업생들과 계성학교 졸업생들은 함께 기념 촬영을 했는데 매산고 여학생과 계성학교 남학생이 매산고 남학생과 계성학교 학생 부인들이 서로 짝을 바꾸어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다. 마침 두 학교는 2006년 자매결연을 맺은 학교로 순천 매산고는 2007년 개교 97년을 맞은 학교로 계성학교가 개교 100주년 행사를 할 때 초대되었던 학교이기도 했다. 이날 교복을 입고 졸업 30주년 기념행사를 했던 두 학교의 만남은 포항 KBS TV와 대구 MBC TV에서 방영 되었으며 64회 동문의 사진은 대구매일신문에도 소개 되었다. 64회 동문들은 경주의 유명한 찻집에서 점심을 나눈 뒤 버스와 승용차에 나누어 타고 경향각지로 귀가했는데 석별의 정을 나누는데만 30분 이상이 걸렸다.

64회 동문들은 이 행사를 위해 공식적인 회의만 13회에 걸쳐 했고 그보다 몇 배나 되는 작은 모임도 가져 행사의 모든 부분에 대해 준비했다. 또한 골프동우회인 성우회는 골프 라운딩을, 족구회는 풋살 경기를 24일 기념행사 전 경주에 미리 도착해서 동우회 행사를 치루었다. 이 날 행사 후에 64회 동문부인들이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고, 서울에 사는 어떤 동문 부인은 '계성 64회 동기들은 맨 날 자기들끼리 모여 술이나 마시는 줄 알았더니 이번에 보니 팬클럽!'라고 했다는 후문이다.

글 · 한학동(64회)



▲ 밴드에 맞춰 노래 한 곡...

특별기획

모교, 2011년 신축 이전시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될 듯

시의회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가속화, 새정부 교육정책에도 부응

모교 상리동 이전의 어려움 시의회에서 해결 2011년이면 신축 건물에 자립형 사립고 면모

연말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선거 공약에 따라 전국에 300개 자립형 고교를 신설하겠다는 정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모교의 상리동 이전이 시의회를 거쳐 확정되었다. 이전 계획은 이미 오래전에 정해졌으나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던 모교 신축 이전이 드디어 구체화된 것이다.

특히 이번 이전은 다른 사립고교들의 경우와 달리 새정부의 교육정책에 입각한 자립형 사립고교로의 전환과 동시에 신축 이전이 추진될 것으로 보여 대구경북 교육계와 시민사회의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다.

전국적으로 우수한 명문사학인 모교의 자립형 사립고 전환 이전은 그만큼 다른 사학들과 교육계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대구에는 자립형 사립고교가 전혀 없다. 재단이 그만큼 재정부담을 해야 하

고, 학생들의 관심을 유발할 만한 이점을 가진 사학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모교는 줄곧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명문고교로 기대를 모아왔다.

그러던 중 이번에는 새정부의 교육정책과도 호흡이 맞고, 시의회가 도시계획과 관련한 난점을 해결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이번에는 모교의 신축이전과 자사고 전환이 동시에 이루어질 전망이 확고하게 정해진 것이다.

사실 동문들은 전통과 영예의 모교가 평준화 이후 2류학교로 추락하는 듯한 모습에 많은 안타까움을 표시해 왔다. 그 결과 장학재단까지 발족시켜 재단과 호흡을 맞춰가며 모교 중흥에 큰 애정을 기울여 왔다.

이제 모교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왔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시 한번 계성가족의 기대와 모교사랑이 뜨겁게 타오를 시간이 온 것이다.

글 · 김정길(56회)

계성고 등 4-5곳 연내 자사고 전환될 듯 교육계 핫 이슈 부상

[2008년 1월 2일 보도] 자율형 사립고가 2008년 교육계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대구·경북 교육계에서는 올해 상반기 중에 자율형 사립고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는 것은 물론 신설 또는 일반 사립고의 전환 신청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지역에서는 일찍부터 자립형 사립고 전환을 준비해온 계성고를 비롯해 4-5개 고교가 자율형 사립고 전환이 확실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정인표 계성고 교장은 “몇 년 전부터 전국의 자립형 사립고들을 다니며 꼼꼼하게 준비해 왔다.”며 “가장 큰 걸림돌이던 학교 이전 문제가 사실상 해결된 만큼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일부 고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의 재정과 조

직, 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율형 전환에 필요한 내용들을 점검하는 등 빠른 물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다른 고교 교장도 “대구에 적어도 7, 8개가 생길 텐데 한두개 생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자율형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2류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이 사립고 내부에서 점점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략)

사교육 시장도 자율형 사립고 설립이 가져올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대구의 경우 지난해 특목고 대비반을 상설화한 수도권 학원들의 진출이 두드러지면서 고입 시장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여서 자율형 사립고의 윤곽이 드러나면 시장이 빠르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하략)

계성고 이전 본격화...2011년 상리동으로

[oo신문 2007년 12월 29일 보도] 계성고가 2011년 3월 대구 서구 상리동으로 이전, 개교한다. 그 동안 걸림돌이 됐던 도시계획 시설 결정과 학교 진입도로 건설 등의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이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 것.

대구시와 대구시 교육청에 따르면 계성고 이전 부지인 서구 상리동 산 129의 4번지 일대 4만 6천964㎡(1만 4천200평)를 녹지에서 학교 용지로 전환하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지난달 30일 확정됐다.

또 200여m의 학교 진입도로 건설을 위한 토지 보상과 건축 등에 소요되는 30억 원도 내년 대구시 예산에 반

영돼 2009년 말까지는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학교법인 계성학원은 이에 따라 세부 학교 이전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대구시 교육청과 함께 학교 및 시설 건축 절차 등을 밟아나갈 예정이다. 법인 관계자는 “학교 이전을 어렵게 만들던 문제들이 거의 해결돼 이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며 “세부 방안이나 중학교 이전 시기 등 관련 문제들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계성학원은 고교 2008년, 중학교 2012년 이전을 목표로 대구시 교육청으로부터 2005년 8월 이전 계획을 승인받았으나 도시계획 시설 결정 등이 늦어져 지연됐다.



신경정신과 전문병원

대구한마음병원

병원장 의학박사 김 동 원 (66회)
전 문 의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311-36
TEL : (053)581-7007 FAX : (053)584-2580
E-mail : kimdwj@hotmail.com

『계원』으로 돌이켜보는 50계단의 추억(3)

『문화』와 『종교』의 이미지로 생생하게 살아 있는 계성의 추억

수양회, 백일장, 음악회, 연극, 합창, 영자신문, 교지 “계성”, 학교신문 “계원”

“빛나다! 창립 54째 돛” 계원 1960년 10월 29일자 3면의 제목이다. 제목 아래 이어지는 기사를 읽어본다. <10월 15일을 본교 창립 54주년 기념일로 마지하는(이 연재기사는 당시 표기를 그대로 살려 쓰는 까닭에 맞춤법 등이 현재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집자주) 본교에서는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작년보다 간소한 발표회를 마련하였다. 15일에는 중고 전원이 기념일을 마음껏 기뻐하고 각각 가정에서 보내었으며 기념발표회는 연기하여 10월 29일에 거행하리라 한다.>

연극반의 공연을 소개하는 기사는 지금 보아도 참으로 대단하다. <15인조로 구성된 연극반은 올해도 김진대 선생님의 연출로 화려한 막을 올리게 되었다. 공연 작품은 유치진 작 “소”이며 우리나라의 농촌 사정과 소작인의 생활을 그려낸 것이다.

각 분장역과 부서는 다음과 같다. 공연시간 : 1시간 50분 가량, 미술담당 : 본교 미술반, 조명 : 시민극장 조명부, 효과 : 방송반 이지흥 선생, 국서(소작농, 50세 가량) 김종만(2-2), 그의 처(40세 가량) 도경섭(1-1), 말뚝이(그들의 장자, 29세) 임세영(2-3), 개똥이(그들의 차자, 23세) 정상훈(2-5), 국진(국서의 먼사 아우) 주해흥(1-2), 귀찬이(동리처녀, 17세) 김수동(2-5), 그의 아버지(40세 가량) 김종규(2-8), 사슴(마슴) 이세정(2-5), 유자나무집 딸(동리처녀) 송선구(1-2), 그의 어머니(2-5), 우삼(이웃사람) 김우신(2-4), 영실(이웃사람) 정성표(2-5), 문진(동리사람, 별명은 텃석부리) 김종규(1인2역), 김주사 김영춘(2-5), 소장사A 김우신(1인2역), 소장사B 정성표(1인2역), 늙은이 김영춘(1인2역), 젊은일꾼 안재한(2-2), 술집하인 조현철(1인2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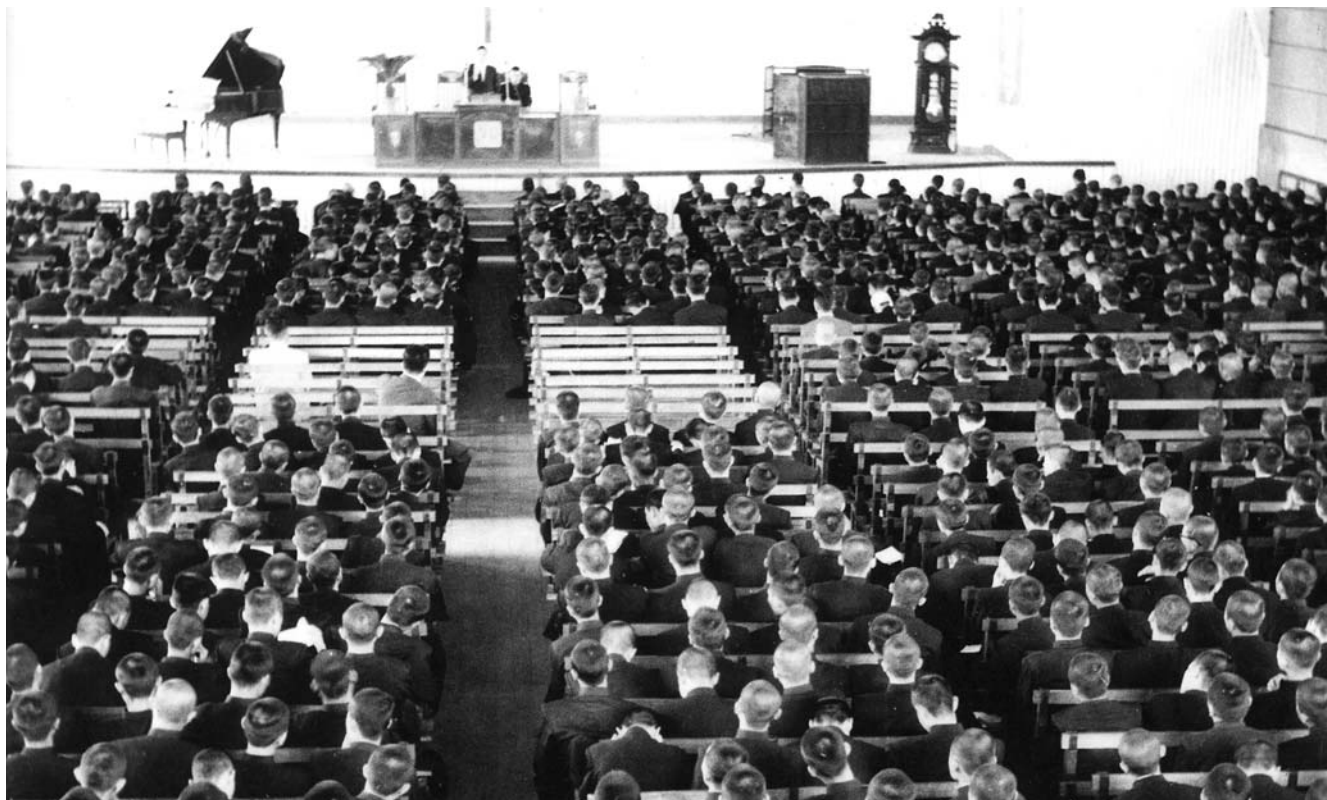
바로 이어 합창반의 활동이 소개되고 있다. <50명의 본교 합창단은 임성길 선생님의 지휘로 발표하게 되는데 발표할 곡목은 아래와 같다.

1. 오페라 칼렌 간주곡 중에서 물레방아(Bizet작), 2. 들장미(werner작), 3. 나의 벗(W.T Wrighton작), 4. 노저어 가자(박재훈 작).>

김진대, 임성길 선생님의 성함이 보인다. 지금으로부터 47년 전인데도 이미 모교에서 연극반을 지도하고 합창단을 이끄셨다. 대구 시내의 어지간한 학교들이 천막을 치거나 불법 조립식 건물을 지어놓고도 ‘학교임네’ 하며 아이들을 모을 때 우리의 계성은 지금도 여전히 튼튼하기만 한 훌륭한 교사(校舍)에서 영자신문을 발행하고 연극을 하고 합창을 하는 선구자적 교육을 했으니 ‘문화 계성’의 이름은 거저 얻어진 불로소득이 아닌 것이다.

4면으로 가면 유병석 선생님의 시집 “마음의 판도” 출간 및 출판기념회 소식이 나오고, 교내 백일장을 열었다는 기사가 나타난다.

18면에 실린 중2 권상호의 동시 “새로 사온 장화”는 정말 순진무구하다. <새로 사온 장화/ 언제 신어 보나// 꺼



▲ 1960년의 대수양회

내보고 넣어두고/ 꺼내보고 넣어두고// 오늘도 햇볕/ 내일도 햇볕// 지금도 꺼내두고 있건만/ 오늘도 여전히 맑은 날씨//> 12면에는 교사 김영도 역 “Schliesse mir die Augen beide Theodor Storm(두 눈을 감겨 다오)”라는 독일시 번역이 실려 있다. <두 눈을 감겨 다오/ 사랑스런 두 손으로! 온갖 나의 괴로움을/ 네 손길 아래 안식을 얻는다//>(하락).> 6면에는 교지 “계성”이 12월초에 발간된다는 기사도 있다.

표지가 백일장 사진이니 계원은 자연스레 우리 계성의 문화적 풍요를 잘 표현해낸 듯하다. 5면에는 ‘매년 우리 학교 주최로 거행되어 오던 국민학교 아동 음악 콩쿠리가 올해는 다섯돌을 맞이하여 성대히 거행’되었다는 기사를 실고 있다. 합창은 ‘사대부국이 또 우승’하였다고 한다.

유도와 농구부가 경북 대표로 전국 체전에 출전한다는 기사도 보인다. 6면에는 선생님들이 미국인 강사를 모시고 방과후에 영어 강좌를 받고 있다는 기사가 있고(교재는 Time지와 Dixon4) 8면에는 계원사 주최 문예작품 현상모집 공고가 실려 있다.

그런가 하면 4면에는 ‘본교 교목부의 정순모 선생님은 지난 9월 15일 경남노회 소속인 부산 향서교회에서 내빈 다수 참석리에 목사로 안수를 받으셨다’는 내용과 ‘사회생활과의 교사이신 황종동 선생님도 지난 9월 18일 대구 삼덕교회에서 집사로 장립하셨다’는 내용을 묶은 “정순모 목사 안수, 황종동 선생은 장립집사로” 기사가 실려 있다. 6면에는 “주계 수양회 대성황”이라는 큰 기사가 사진과 함께 실려 있다.

기사는 ‘20일 아침부터 본교 54주년 개교기념일을 축하하는 행사의 하나인 대수양회가 열려서 23일 새벽 집회를 끝으로 무사히 마쳤다’로 시작되



▲ 1960년 전후의 계성악대

고 있다.

‘계성 발전은 신앙이냐? 학구냐?’를 논제로 토론회가 열렸는데 학구편이 승리했으며 ‘개인 1등은 전재수, 2등은 곽

영조, 3등은 석경종 군’이라는 이색 기사도 보인다. 역시 계성은 문화와 종교의 요람이로다.

다음호에 계속

* 편집자주

‘계성학교 교내신문 계원(啓園)’을 읽으면서 돌이켜보는 50계단의 추억’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1952년부터 발행된 계원은 우리 계성의 자랑이자 향토교육사, 나아가 한국교육사의 귀중한 사료(史料)입니다. 계원으로 돌이켜보는 50계단의 추억은 우리 계성의 위대한 모습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보여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원고 집필은 정만진(61회, 대구시 교육위원) 동문이 맡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의 잊지 못할 추억이나 빛바랜 사진을 jgkim56@hanmail.net (충동창회 사무국장, 56회, 김정길)로 보내주시면 동창회보에 게재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글 · 정만진(61회)

신뢰와 창의로 이룩한 세계 유일의 테스코 현지인 CEO

KMAC 2008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14위 수상



이 승 한 (52회)

삼성테스코 대표이사

.....

홈플러스라는 새로운 가치점 창출, 3세대 할인점, 버스론, 자전거이론 등 새로운 경영활동 및 경영이론 개발을 통해 '창의 경영의 선구자'로 불리는 이승한 동문, 공학박사이자 명예경영학박사이시다. 그러면서도 서울대 환경대학원 총동창회장(2008), 창의서울포럼 대표(2007),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후원회장(2007), 와튼CEO 과정 총동문회장(2006), 창의서울자문위원장 겸 100일 창의추진본부장(2006), SC제일은행 사외이사(2005), 하버드대학 운영상임이사(Board Member)(2004), 세계 표준화 기구(GSI) 부회장(2004), EAN 이사회 상임이사(2004), 한국능률협회 전략경영위원회 위원장(2004),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위원회 위원장(2004),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회장(2003), ECR Asia Council 공동의장(2002~2004) 등을 맡아 사회활동에도 너무나 바쁘시다.

이 동문이 우리나라 유수의 유통업계 CEO가 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삼성물산 유통부문 대표로 발탁되면서부터이다. 이견희 삼성그룹 회장의 특별 지시로 유통사업 매각을 지휘하는 특임을 맡은 이 동문은 삼성물산 유통부문을 세계 3위 유통기업인 영국 테스코사에 매각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 동문은 테스코사의 끈질긴 요청으로 CEO를 맡아 삼성테스코 홈플러스를 이끌게 된다.

* 대형 할인점 유일의 '존경받는 기업'

합작 당시 당당하게 요구하고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는 면모를 통해 대단한 신뢰를 얻은 이 동문은 전세계 15개 테스코사 중 유일하게 현지인 CEO로서 경영을 맡고 있다. 인사, 예산 집행 등 주요 의사 결정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얼마 전 삼성테스코(홈플러스)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08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14위에 선정됐다. 이는 지난 해 52

위에서 38계단이나 뛰어 오른 놀라운 결과이다. 이승한 동문에게 존경받는 기업에 대한 평소 생각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저는 큰 기업보다 소비자와 사회,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기업을 만들고 싶습니다. 존경받는 기업은 ‘성장’과 ‘기여’의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얼굴인 성장의 얼굴은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치열한 시장 경쟁 속에서 얼마나 꾸준히 성장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얼굴은 사회 가치를 실현하는 기여의 얼굴인데, 시장 가치와 더불어 정도경영, 경제 및 산업 발전에의 기여, 지역사회 기여, 사회공헌활동 등의 사회가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삼성테스코는 99년 창립 초기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요한 경영요소의 하나로 사회공헌 활동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로 홈플러스는 대형 할인점 단독회사로서는 유일하게 존경받는 기업인증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승한 동문의 말씀을 증언하는 자료를 찾아본다. 이미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내용이라 확인도 쉽지만 공신력도 분명하다. 홈플러스는 2007년 사회공헌 이미지 부문에서 업계 1위로 선정되었고, 메세나 협회로부터 문화예술공헌기업 국내 2위의 영예를 안았다. 홈플러스는 문화교육경영, 나눔경영, 환경경영 등 3대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특히 문화교육에 대한 사회공헌활동은 세계 최대 규모로 공인받고 있다. 얼마 전 문화센터 60개점을 돌파해 단일기업 문화센터로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최대 규모를 갖추었고, 문화센터 운영을 통해 2007년에만 57만 명, 8년간 누적수치로 200만 명이 넘는 지역민들에게 평생교육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아름다

운 가게, 나눔가치 교육, 임직원 나눔 자원봉사 등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나눔활동을 전개해 왔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에너지 절감’과 ‘기후 변화 대응’ 등 환경분야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할 계획이며, 친환경 구매, 친환경 물류프로세스, 환경을 고려한 점포 운영 등 경영 전 분야에 환경경영의 개념을 도입하고, e과란 어린이 환경운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아래는 이승한 동문과의 대화를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홈플러스 9년 CEO의 성과 소개

“홈플러스는 2개 점포로 시작해 8년 만에 전국에 66개 점포를 운영하고, 연간 7조원에 가까운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테스코가 처음 회사를 설립할 당시 국내 할인점시장은 이미 11개 회사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레드오션이었습니다. 기존 할인점과 똑같이 위치를 잡는다면 아무짝에 안 되고, 도저히 게임에서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내외 할인점을 벤치마킹해 보니 고객들은 원스톱 쇼핑뿐만 아니라 원스톱 생활 서비스까지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1층에 문화센터, 어린이놀이터, 푸드코트, 미용실, 클리닉 등 생활편의 서비스 공간을 넣은 것입니다. 지금은 이런 개념이 당연시되지만 당시만 해도 원스톱 쇼핑과 생활 서비스를 묶은 형태의 할인점은 없었습니다. 타 경쟁사에는 없는 가치를 창출했기 때문에 레드오션이 블루오션으로 바뀐 거죠.

이것이 바로 세계 최초로 선보인 새로운 개념의 2세대 할인점 ‘가치점’입니다. 처음에는 ‘저것이 무슨 할인점이야’ 하던 경쟁사들도 5년이 지나서 동안 하나둘 모두 따라오더군요.

최근에는 잠실점을 통해 3세대 할인점

을 선보였습니다. 잠실점을 준비하면서 경영환경을 점검해 보니 한마디로 사면초가였습니다. 잠실은 롯데의 아성입니다. 고민을 거듭하던 중 이순신 장군을 떠올렸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23전23승을 기록했습니다. 비결이 무엇이나 하면 지는 싸움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지 않기 위해 지형을 연구하고 다양한 전략을 세웠죠.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지지 않을 것인가를 고민하다 얻은 해답이 바로 3세대 할인점입니다. 1세대 할인점이 쇼핑만 하는 곳이었다면 2세대 할인점인 가치점은 원스톱 생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3세대 할인점은 거기에 최근의 트렌드인 웰빙과 감성, 문화를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 할인점 안에 베이커리 카페와 커피 전문점을 열면서 테라스를 만들고 파라솔을 설치했습니다. 한 층은 아예 갤러리로 만들고, 100석 규모의 와인 바도 있습니다. 할인점에서 저렴한 가격에 와인을 사 가지고 올라와 소액의 좌석비만 내고 앉아 근사하게 와인을 마실 수 있게 했지요. 헬스클럽, 사우나, 골프연습장도 한쪽에 들어와 있고요. 또 고객이 줄을 설 필요 없는 ‘대기인원 자동감지시스템’, 고객이 직접 계산하는 ‘셀프 체크아웃 시스템’, 전화주문 피킹(picking) 서비스 등 국내최초의 첨단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 문을 연 지 두어 달 됐는데 벌써 지역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 서울시에 불어넣은 창의 바람

이승한 동문은 창조경영의 선구자로 각인되어 있다. 2006년에는 ‘100일 창의서울추진본부’의 공동본부장으로 활동하며 서울시 백년대계를 위한 기본틀을 만들기도 했다. “2006년에 ‘100일 창의



▲ 2003년 오픈한 부천 상동점. 문화예술도시 부천에 부합하는 ‘거리미술관 할인점’ 컨셉이다. 한쪽 전면엔 수십여명의 작가가 참여한 800여점의 미술품이 모자이크 방식으로 꾸며져 있어 시민들이 도심속에서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100년이 넘었으니 ‘제2의 창립’이라고 생각,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아 새로운 학교의 모습으로 한국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넘어 세계에서 빛나는 학교가 되길 바랍니다. 또 계성학교만의 아이덴티티를 정립하는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서울추진본부'의 공동본부장을 맡게 되었어요. 오세훈 시장께서 시 행정에 마케팅 개념을 도입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통해 시 조직에 새바람을 넣자는 취지에서 함께 추진하자고 요청을 했고요, 서울시 행정에 마케팅 개념을 도입해 조직과 업무처리 방식을 바꾸고 시민고객의 만족을 넘어 감동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 공무원의 일처리 방식, 회의 문화, 복장 등 모든 영역을 바꾸어 시 조직이 변화할 수 밖에 없는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과거 연공서열 위주에서 벗어나 일과 성과를 위주로 하는 인사 시스템과 창의적 실패를 오히려 칭찬하는 신감사 시스템 등 많은 부분에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돌이켜 보면, 민간 최고 경영자로서 100일간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 봉사하게 된 데 무척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100일간 활동 후 백서만 만들고 나오려 했는데 창의서울포럼 회장을 맡아 계속 활동하게 됐습니다. 창의서울포럼 회원은 현재 500명이 조금 넘는 데 앞으로는 1000명까지 늘려보려 합니다. 사회각계각층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서울시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앞으로 뭘 하면 괜찮겠는지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입니다. 앞으로도 미력하나마 시민고객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창조경영 CEO의 대표적 인물

유통업계에 혁신과 창조의 바람을 몰고 다니는 이승한 동문은 2007년, 2008년 연달아 기쁜 소식을 들었다. “2007 대한민국 창조력 페스티벌”에서 초대 창조경영인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 초에는 ‘2008 Korea CEO Summit 창조경영대상’에서 창조경영대상을 초대 수상했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인에게 맞는 가치점을 창조하고 새로운 유통기법과 신기술을 도입해 홈플러스를 경영하고, 창의적 사고와 경영활동을 업계 전반으로 확산시킨 점이 수상 사유라 들었습니다. 계란을 스스로 깨면 병아리가 되지 만, 남이 깨면 계란프라이가 됩니다. 그

만큼 스스로 깨고 나오며 새로움을 추구할 때 진정한 창조경영도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 동문에게 창의를 이끌어 내는 방법에 대해 물어보았다.

“흔히들 ‘창의’는 타고난 천재성이나 DNA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창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다면 첫째는 현상에 대한 의문입니다. 닭과 꿀벌을 보세요. 큰 날개를 가지고도 ‘나는 닭일 뿐’이라고 생각하면 날지 못합니다. 하지만 꿀벌은 몸집에 비해 작은 날개를 가지고도 ‘하늘의 새처럼 날 수 없을까?’ 의문을 품고 1만4천rpm(분당 회전수)의 날갯짓으로 도전해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높은 비전과 목표입니다. 두바이는 2018년에는 연간 1억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계획했습니다. 현재 관광객이 700만 명 정도인데요. 만약 두바이가 목표를 800만명 정도로 잡았다고 생각해봅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현재 추세만 유지해도 목표에 도달할 수 있으니 상상력이 필요 없는 지극히 평범한 아이디어만 나올 것입니다. 높은 목표의식이 두바이를 오늘날 세계적인 ‘창조의 도시’로 발전시켜온 것입니다.

셋째는 성공에 대한 확신입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백열전구를 발명했을 때 젊은 기자가 에디슨에게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을 때 기분이 어떠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에디슨은 ‘실패라니요? 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2천 번의 단계를 거쳐서 발명했을 뿐입니다’라고 답했다고. 작은 실패에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갖고 집요하게 실천해야만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 모교, 이제는 세계의 명문으로 서야

“100년이 넘었으니 ‘제2의 창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아 새로운 학교의 모습으로 한국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넘어 세계에서 빛나는 학



▲ 이승한 대표이사 부부와 딸 현주 양과 사위 민준 군.

교가 되길 바랍니다. 또 계성고등학교만의 아이덴티티를 정립하는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모교 유도 시간에 배운 끈기와 집념

“유도를 가르치던 권수보 선생님이 기억납니다. 아마도 다른 수업은 책을 펴놓고 해야 하는데, 마음껏 매트 위에서 뛰어 놀면서 배울 수 있어서인가 봅니다. 그렇지만, 선생님께 유도를 배우면서 투지와 인내, 열정을 배웠습니다. 무엇이든 끈질기게 하고 포기하지 않는 지금의 모습도 아마 당시 유도선생님으로부터 배웠을 겁니다.”

* 병아리, 동아리, 도우미에서 찾는 가족의 의미

“나는 우리 가족의 아이덴티티(F.I-Family Identity)를 ‘리미미 가족’이라고 정했습니다. 항상 신혼처럼 생활하는 병아리, 취미를 함께하는 동아리, 봉사하는 도우미 가족의 마지막 글자를 딴 것입니다. 가족은 힘을 주는 에너지의 원천이며, 일의 성공만큼 가정의 행복도 중요합니다. 가족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것은 가족 문화를 창조하는 일이기도 하죠. 가족의 개성도 나타낼 수 있고, 가족 간에 서로 챙겨주고 사랑을 키우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 명상, 음악, 그림으로 정신건강 유지

“건강은 체력, 습관, 마인드 컨트롤 등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력은 하루에 20분씩 스트레칭을 하고, 헬스와 골프 등

으로 단련합니다. 또 다소(多笑), 소식(小食), 숙면을 습관으로 하고 있죠. 음식을 먹을 때도 10%는 남기고, 물을 많이 먹는다거나 등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해 실천하고 있습니다. 명상이나 음악감상, 그림에 관심을 갖는 것도 정신 건강을 지켜주는 데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그룹의 프로젝트 기획 및 리움 박물관 마스터 플랜을 맡으면서 그림을 좋아하게 되었는데, 작품을 볼 땐 늘 상상하면서 감상합니다. 여가시간엔 그림 외에도 디자인 감상, 음악 감상, 사진 촬영 등을 즐기곤 하죠. 시간이 날 때면 인사동 등 갤러리를 방문하고, 해외 출장 중에도 짬을 내 현지 갤러리를 방문하고 좋은 작품은 수집하기도 합니다.”

* 사람을 수출하는 시대의 주역 될 터

“머지않아 홈플러스 매장을 100여 개 이상으로 늘린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현재 단위 점포당 매출액이 업계 최고 수준이니, 곧 업계 1위도 노려볼 수 있겠다 하는 꿈을 갖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상품이 아니라 사람을 수출하는 시대의 주역이 되고 싶습니다. 현재 제 밑에서 일하다가 글로벌 CEO로 나간 사람이 모두 3명이고, 간부급은 30여명이 나가 있습니다.

타국 CFO(최고재무관리자)로 발령받은 인재도 있고요. 현재 한국에 테스코리더트레이닝 센터 설립을 추진 중인데, 한국 인재들이 전 세계로 나가 자리를 잡을 때, 한국은 진정한 유통강국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글 · 정만진(61회)



▲ ‘2008 코리아CEO 서밋 창조경영대상’에서 초대 창조경영대상을 수상했다. 왼쪽은 코리아CEO 서밋 박세직 명예이사장.

인물

신일희(44회) 계명대학교 이사장 폴란드 국립 쇼팽음악원 명예박사 학위 받아

계명대 신일희 이사장이 200년 전통의 폴란드국립쇼팽음악원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는 아시아인으로 최초, 비음악인으로서 세계 처음이라 계성가족들에게 특별한 자긍심과 기쁨을 주고 있다.

폴란드국립쇼팽음악원측은 '지난 10년간 선진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학술교류에 앞장서 음악인재 발굴과 양성에 힘썼으며 한국·폴란드 협회를 통해 양국간 민간외교 활성화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공을 높이 평가해 2월 22일(금) 폴란드국립쇼팽음악원 콘서트홀에서 열린 학위 수여식을 통해 계명대 신일희 이사장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였다.'고 밝혔다.

1810년에 개교한 폴란드국립쇼팽음악원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아카데미. 신 이사장에게 수여된 학위는 역대 20번째 명예박사학위로 그간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 첼로의 거장 노스트로비치, 피아니스트 루빈스타인, 세계적 작곡가 루토슬랍스키 등 저명한 음악가에게만 수여돼 왔다.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즈드로옌스키 문화부장관, 마이콥스키 전 장관 및 전, 현직 대사, 계명대 이진우 총장 등 주요 내외인사 150여명이 참석했다. 폴란드 크바시니에프스키 전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와 폴란드 계명-쇼팽음악원 에바 이지콥스키교수, 계명대 이승선교수 및 쇼팽음악원 졸업생 서경연씨의 축하공연도 함께 열렸다.

신 이사장은 지난 99년 계명대 총장 재임 시 폴란드 국립쇼팽음악원과 함께 당시에는 생소했던 연계학위제(7+4)를 국내에서는 최초로 도입, 계명대에 '계명-쇼팽음악원'을 설치한 바 있다. 연계학위제는 학부과정 7학기를 계명대에서 마치고 폴란드국립쇼팽음악원에서 2년간 유학을 하면 학사학위와 석사학위를 동시에 취득하는 프로그램. 6명의 폴란드쇼팽음악원 교수진과 아티스트펠로우 8명을 초빙해 진행된 이 교육과정 재학생들은 각종 국제 콩쿨에 해마다 수상하는 등 실적을 올리며 현재 우리나라 대표적인 연계학위제의 성공모델로 손꼽히고 있다.

■ 신일희 이사장 폴란드와의 인연...

신 이사장은 95년부터 지방에서는 최초로 민간외교단체인 한국·폴란드협회 회장직을 수행하며 30여명의 회원들과 폴란드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를 방문하여 폴란드 사회지도자층과의 만남을 통해 공식 외교활동으로 채워지지 않는 여러 부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양국 우호증진의 창구 역할을 했다. 봉사활동, 장학금 지급, 문화행사 개최 등 양국간 민간외교에 힘써온 결과 2000년 폴란드 정부로부터 최고 훈장중 하나인 대십자 훈장(Commander's Cross of Merit)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2002년에는 국가원수로서 이례적으로 폴란드 크바시넵스키 대

통령이 계명대를 직접 방문해, 당시 신일희 총장과 나란히 월드컵 경기를 관전하는 등 감사와 우호의 뜻을 표시했다. 2005년부터 폴란드 명예영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신 이사장은 양국간 교류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91년 미국 트리니티 대학을 비롯 롱아일랜드(미국), 상트페테르부르크(러시아), 대만국립사범대, 일본 도산학원 및 류큐대학교 등 6개 해외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바 있다.

• 1991. 6 Trinity 대학교(미국) 명예

인문학 박사 Doctor of Humane Letters, h.c.

• 1996. 5 Long Island 대학교(미국) 명예 법학 박사 Doctor of Laws, h.c.

• 1996. 9 St. Petersburg 국립대학교(러시아) 명예박사 Doctor h.c.

• 2000. 6 대만 국립사범대학교(대만) 명예 교육학 박사 Ed. D, h.c.

• 2002. 4 도산학원 대학(일본) 명예 박사 Doctor h.c.

• 2004. 5 류큐대학교(일본) 명예철학 박사 Doctor of Philosophy h.c.



한국콜마 윤동한(52회) 회장과 KTF 조영주(60회) 사장 국내 최고 권위의 IMI 경영 대상-기술혁신 부문 수상



한국콜마 회장 윤동한(52회)
중견·중소기업부문 '기술혁신 부문상' 수상



KTF 사장 조영주(60회)
대기업부문 '기술혁신 부문상' 수상

한국콜마 윤동한(52회) 회장과 KTF 조영주(60회) 사장이 1월 25일(금) '2008년 IMI(국제경영원) 경영대상'의 중견·중소기업부문 '기술혁신 부문상'과 대기업 부문 '기술혁신 부문상'을 각각 수상했다. 시상식은 1월 25일 11시 30분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 하모니볼룸에서 이윤호 IMI 원장, 장지중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IMI(국제경영원, 원장 이윤호)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설 경영전문교육기관으로, 뛰어난 경영성과와 함께,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는 우수 경영자를 매년 선정하고 있다.

2008년 IMI 경영대상은 기술혁신, 글로벌

경쟁력, 지식경영, 사회공헌 등 4개 분야에서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윤동한 회장과 조영주 사장은 기술혁신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IMI는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에게 수여된 경영대상(기술혁신부문)은 한국콜마가 중견·중소기업 분야에서 R&D 능력이 탁월하고 세계적인 기술경쟁력을 갖추었으며, 지속적인 미래산업에 투자함으로써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것이 높이 평가되었다.

또한 화장품 및 제약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한 부분을 높이 평가한 것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자로서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을 성실히 실천하여

기업인들의 귀감이 되고, 기업인이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기여한 공로도 높이 평가 받았다.

또한 KTF 조영주 사장은 "과감한 차세대 통신 연구개발과 투자를 통해 글로벌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하고, 특히 세계 최초로 3.5세대 전국 서비스인 'SHOW'를 개시하는 등 한국 IT의 위상을 드높였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영주 사장은 2005년 7월 KTF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2007년 3월 출시한 SHOW를 앞세워 3세대 이동통신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심사위원장인 서울대학교 송병락 명예

교수는 심사평에서 "IMI 경영대상은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경영혁신을 이끌어 내고, 뛰어난 경영성과로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우수한 기업경영인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존경받는 기업 경영인상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히며, "심사위원단은 본 시상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상 경영인들이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노사화합으로 신기업 문화를 창출하며, 건전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을 수행하는 등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경영인의 모습을 훌륭하게 갖추었다."고 평가했다.



모교소식

정인표(56회)모교 교장
한국 교원단체 총연합회
대구시 11대 회장에 취임

정인표 모교 교장은 지난 해 있었던 한국 교원단체 총연합회 대구시 11대 회장 선거에서 피선되어 2008년 1월 4일 대구 교직원 공제회관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이로서 정인표 교장은 향후 3년의 임기 동안 교총을 대표하여 시교육청과 단체교섭을 하는 등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을 맡아 하게 되었다.

호주 어학 연수

모교는 작년부터 실시해 온 학생·교사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올해도 실시했다.

2월 25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모교와 자매결연을 맺은 호주 고스포드 기독교 학교로 교사 5명과 학생 24명이 어학연수에 떠났다.

교사들은 법인 지원금으로 학생은 동창회 장학금(전액지원 7명, 반액지원 10명)

과 자비(7명)로 어학연수에 참가했다.

세례식

모교는 최근 몇 년간 실시해온 학생 세례식을 올해도 계성교회에서 가졌다.

11월 28일 예배 시간을 통해 151명이 세례를 받아 계성의 건학이념을 충실히 이어나갔는데 이는 본인이 원하여 선발고사를 치르고 입학한 학생이 아니라 주침배정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룬 것이라 의미가 더욱 크다.

대입 진학 상황

올해 대학 입시에서 서울대학교 3명을 비롯한 서울·경기 26명, 육사 1명, 국군간호사관학교 1명, 대구경북 293명이 대학에 진학했다.

특히 졸업식에서 박성대 총동창회장은 신회식(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컴퓨터공학부), 이한열(서울대학교 자연대학 물리·천문학과), 허진영(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과학교육과) 학생에게 계성동문장학회 장학증서와 장학금 300만원씩을 각각 수여했다.

교사 이동

조영복(기술, 34년 6개월 근무), 임동운(수학, 33년 근무), 김종우(윤리, 29년 근무) 세분의 교사가 올해 2월 명예퇴임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5명(윤리, 국어, 역사, 수학, 기술가정)의 신입 기간제 교사가 새로 모교에 근무하게 되었다.

2007학년도 졸업식



2007학년도 졸업식이 2월 13일 오전 10시 30분 대강당에서 거행되었다. 고등학교 학생부장 서일교 선생의 사회로 진행된 졸업식은 개식사, 찬송(34장), 성경봉독 및 기도(정봉성 목사), 국민의례(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를 거쳐 졸업장 및 상장을 수여하고 재학생으로 구성된 고등학교 합창단이 졸업 축하를 연주하며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이어서 회고사(고등학교 교장), 치사(이사장), 축사(총동창회장) 등의 졸업의 의미를 되새기는 말씀의 시간을 가지면서 졸업생은 졸업의 순간을 실감하였다. 이어서 스승의 은혜 제창(졸업생), 교가 제창과 축도(박이득 목사)를 끝으로 졸업식을 모두 마쳤다.

졸업식 후에 졸업생·학부모·친지들

은 교정에서 기념촬영을 하며 3년간 정들었던 학교를 떠나야 하는 아쉬움을 달래기도 하였다.

2008학년도 입학식



3월 3일 오전 11시, 대강당에서는 중·고등학교 입학식이 거행되었다. 학생부장 최정일 선생의 진행으로 개식사, 찬송가 제창에 이어, 정봉성 목사의 성경 봉독 및 기도 등 예배 순서에 이어 국민의례 순으로 이어졌으며, 손용식 교장의 환영사, 김태동 재단이사장의 치사, 장세환 총동창회 부회장의 축사에 이어서 중·고등학교 대표학생의 신입생 선서, 중학교 합창단의 축하, 중·고등학교 교장의 교직원 소개, 교가 제창, 고등학교 박이득 목사의 축도로 2008학년도 입학식을 마쳤다.

이날 계성 동산에 새로이 발을 들인 학생들은 중학교가 294명, 고등학교가 481명으로 이들은 새로운 시대와 역사를 시작하는 계성인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부소식

재부지부



2007년도 송년회를 12월 6일 부산초량에 노블리아뷔페에서 성대하게 치러졌다.

1부는 정기총회 2부는 송년의 밤 행사로 이어졌으며, 이번 총회에서는 2008년을 힘차게 이끌어갈 새로운 회장으로 노영택(52회) 동문이 선출되었다.

대구에서 박성대 총동창회장을 대신하여 내려온 김정길(56회) 사무국장이 전회장 정덕수(51회) 동문의 노고를 치하하고, 공로패를 전달하였으며, 감사에 조장호(52회), 황용욱(56회), 총무에 김승용(61회), 재무 김인식(67회), 부총무 남기성(67

회) 동문이 각각 유임되었다.

2부 행사 송년의 밤에는 손계학(59회) 동문이 부산고유의 동래학춤과 겨울밤을 수놓은 김명찬(61회) 동문의 섹스폰 4중주로 많은 동문들의 가슴에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희망찬 하루로 이어졌으며, 많은 동문들의 찬조와 선물로 행운권 추첨과 대형 선물 증정으로 참석하신 동문들을 기쁘게 하였다.

그리고 회장단 회의가 서면 호림한정식에서 2월 25일 개최되었다.

미 중서부지부

미 중서부 동창회는 2007년도 송년모임을 12월 2일 시카고 지역의 아리랑식당 별관에서 서수남, 하청일 콤비로 유명한 가수 하청일 씨를 초청하여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그외에 노래자랑, 선물교환 등 재미있는 순서들이 많이 준비되어 동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재 미 중서부 동창회 임원은 회장 김왕기(59회), 부회장 박창호(60회), 총무 이호섭(61회), 서기 손대곤(60회)로 구성되어 있다.

재영천지부

재영천 계성동문회는 2007년 12월 28일 수덕예식장 뷔페홀에서 동문 및 가족

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2008년도를 새롭게 이끌어갈 신입 이왕희(52회)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을 선출하기로 했다.

이왕희 신입회장은 “본교 개교 100주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모교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주문한 뒤 “그동안 선배님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재임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동문회 발전의 디딤돌이 되겠다.”고 취임인사를 했다.

1부에 이어 2부 행사에는 석식 및 다과를 즐기며 동문 상호간 화합과 발전을 기원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회장단에게 격려를 보내기도 했다.

2008년도 회장단 명단은 다음과 같다.

▷고문 : 이종록(36회), 이상우(37회), 김재기(42회), 김태원(44회), 허동화(44회), 조규채(46회), 조준일(47회), 임성수(48회), 주면구(50회) ▷회장 : 이왕희(52회) ▷부회장 : 이광운(54회), 차인화(56회), 지송식(59회), 이석순(63회) ▷감사 : 황병홍(56회), 임복원(58회) ▷총무 : 정점식(66회) ▷행정 : 이한식(67회) ▷회계 : 김국진(68회)

회장과 총무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회장 이왕희(52회)-경북 영천시 고

경면 단포리 100번지, TEL.(054) 335-2003, H.P.010-4812-2003 ▷총무 정점식(66회)-경북 영천시 임고면 양향1리 757-37번지, TEL.(054) 335-2513, H.P.010-2777-2513

재포지부



2007년 12월 20일(목요일) 19시 00분 죽도동 소재 웨딩캐슬 대 연회장에서 김현호(43회) 고문, 이성형 회장과 94명의 동문을 포함 130여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하였다. 특히 김현호(43회), 정재룡(46회) 원로 동문, 김상수(48회) 영덕 동문 회장 그리고 포항제철소장 오창관(58회) 동문께서 각별히 본 동문회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찬조금을 희사하였다. 또한 총동창회의 김정길(56회) 사무국장께서 참석, 행사를

Utem
주식회사 유템/영남지사

SHOW

KTF특수법인팀 소속 화상폰 전문업체

계성동문지정업체 | tel 053-429-6400 | fax 053-429-6405 | e-mail janggang.nate.com

주식회사 유템 대구 중구 삼덕2가 210-1번지 진석타워 1506호 www.showutem.kr

더욱 더 빛이 나게 하였다.

◆ 재영덕지부

2008년 무자년을 맞이하여 1월 16일 저녁에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를 영해면 내의 식당에서 회장 김상수 외 8명의 선·후배 동문들이 참석하여 밤 늦게까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치루어졌다.

이날 임원 개편을 하면서 10여년간 영덕 동문회의 살림살이를 맡았던 조원태(66회) 동문이 물러나고 김경태(60회) 동문이 차기 사무국장을 맡기로 하였다. 회장 김상수 동문은 유임되었다.

◆ 칠곡지부

지난 12월 7일 봉계동 수상골프장 식당

에서 장영철(42회) 고문, 전임회장 이용상(46회), 현 회장 홍호용(53회) 동문과 35명의 동문들이 모여 송년모임겸, 2008년 회장 이·취임식을 하였다.

41회 박노택 선배부터 83회 문성희 동문까지 무려 4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화기애애한 자리를 마련하였다. 뒷풀이에서는 계성학교를 주제로 한 퀴즈풀이를 하

여 다양한 농형 상품권도 나누어 가지는 자리도 있었다.

◆ 재경산지부

재경산 동문회는 2007년 11월 16일 강원 북어나라에서 다수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산동문회 연말모임을 개최하였다.

동창 회동아 리소식

◆ 산우회



계성총동창산우회 2008년 첫 정기산행이 경남 거창 소재 “보해산”에서 시산제와 함께 실시되었다.

추위가 오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많이 했지만 아주 맑고 따스한 날씨속에 이루어진 이번 산행은 약9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대형버스 2대 및 마이크로 버스 1대 등 총 3대의 버스에 분승하여 오전 8시 모교를 출발하면서 시작되었다.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덕분인지 시간적으로도 아주 여유있게 이동할 수 있었는데, 거창군 주상면 거거리 입구, 보해산 초입에서 시작된 산행은 A(짧은코스)와 B(긴코스) 두개의 구간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이인직 제1등반대장의 개념도 안내에 따라 산행코스를 숙지한 회원들은 보해산 초입에서 간단한 스트레칭과 교가제창을

마무리하고 삼삼오오 산행에 나섰는데 이때 시각이 오전 10시경 이었다.

저(신대수)는 시산제 준비 관계로 산행에 따라 나서지 못한게 못내 아쉬웠지만 여러가지 일거리가 많다는 생각을 하니 산행 못지 않게 바쁜 걸음을 떼어야만 했다.

다행히 동기인 서태호가 일손을 자청하고 나섰기에 한결 마음이 놓이긴 했다.

폐교된 보해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시산제를 지낼 예정인데 먼저 양동이에 물도 길러오고, 오뎡탕을 만들기 위한 육수를 우려내기 위해 버너 불을 피우고, 과와 무우를 다듬고.. 등등 그래서 2개의 짐통에 각각 무우, 대파, 다시마, 멸치가루, 대게, 빵게 등을 아낌없이 넣고는 풀기를 기다리는 동안 현수막을 걸고 제상을 차리는 등 바빠 움직이다 보니 어느새 회원들이 산행을 마치고 하산할 시각이 되었다.

오후 2시 30분경에 첫 하산 회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물론 짧은 코스를 운행한 회원들이었다.

선착한 회원들은 각각 폭 익은 오뎡으로 허기를 채우는 동안 회원 한둘씩 도착하기 시작한다. 긴코스를 산행한 회원들은 좀 늦은 감이 있었는데, 대개 오후 3시 30분에 선두 도착을 시작으로 오후 4시 30분경 마지막 회원이 도착함으로써 오늘 모든 산행을 마치게 되었다.

모든 회원이 도착하자마자 2008년 시산제를 시작하였는데 전체 회원의 “참신”, 박영태(60회) 회장의 “강신”과 “조현”의 술잔을 올리는 의식으로 시작되었고 남기진(51회) 고문님의 축문 낭독과 서정원(39회) 선생님과 김시우(52회) 전임회

장님의 “아현”이 이어졌다.

또한 각 기별 산우회원들의 제례가 있고, 마지막으로 전체회원의 “사신”으로 모든 시산제 행사는 마무리 되었다.

시산제를 마치고 기별 삼삼오오 석쇠를 중심으로 둘러앉아 양미리 구이와 하산주를 즐겼는데, 아주 화기애애하고 즐거운 자리였던것 같다.

오후 5시 30분경 1호차가 먼저 귀가길에 나서고 나머지 회원은 잠시 더 즐거움의 시간을 가진뒤, 청소, 잔물정리 등의 마무리를 마지막으로 오후 6시 30분경 전원 귀가를 위해 버스에 탑승하고, 이로써 모든 행사는 마무리 되었다.

◆ 계마회



계성마라톤동호회가 작년, 올해 단체 참가대회(현풍 비슬마라톤 대회, 경주 동아마라톤 대회)에 많은 회원들이 참가하여 친목과 우정을 도모함은 물론 뛰어난 기록을 거두었다.

하프대회였던 현풍 비슬마라톤 대회엔 40여명의 선후배회원들이 참가하여 맑은 공기 속에서 뛰고 우의를 다졌으며, 지난

11월 경주에서 열렸던 동아마라톤 대회엔 50여명의 회원들이 참가하여 풀코스 20여명 완주, 하프코스 30여명이 완주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또 한편 서울 계성마라톤클럽은 지난 10월 상주 마라톤 대회에 단체 참가하여 풀코스 20여명, 하프코스 10여명이 한 명의 낙오도 없이 완주하는 기염을 토하였다.

올해 봄 단체 참가대회로 예정된 4월달 대구 마라톤 대회는 2012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 기원 및 육상불을 조성하기 위한 대회여서 많은 회원들(40여명)이 계성유니폼을 입고 땀과 준비중이다. 한편 올해 가을 단체대회는 우리나라 최대의 대회인 춘천을 예정으로 클럽 전체가 맹훈련을 하고 있다.

◆ 기우회

2008년 1월 14일 종식당 ‘MR차우’에서 계성 기우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이재운(56회) 초대회장을 비롯 배영욱(58회), 이 순(59회) 역대회장 및 박영태(60회) 직전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박세욱(62회) 동문이 2008년도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2007년 한해 동안 급수별 개인전 부활, 기수별 바둑대회, 경북고와의 교류전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친 박영태 직전회장은 2008년도 계성총동창회 산우회장에 취임하였고, 직전회장으로서 계성기우회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하며 박세욱 회장에게 힘을 실어 주었다.

이재운 초대회장을 비롯 역대회장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지로 2008년 계성 기우회가 힘차게 출발하였다.

기 별소식

◆ 제44회

△회장 : 박정석

△총무 : 김재양

2008년도 정기총회가 지난 1월 22일 다수의 동기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치루어졌다.

특히 이날 2008년도 동기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회장에 박정석 동기가 유임되고 수석부회장 김동환, 부회장 김상웅, 총무 김재양, 재무 김정택, 감사 최재욱, 박유원 동기가 수고해 주기로 하였다.

2월 15일 금요일 정기모임이 24명 동기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향뜰에서 열려 이준 직전회장이 총동창회장으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 제49회

△회장 : 김태홍

△총무 : 조정규

2008년 1월 12일 제이스호텔에서 34명의 동기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병용 총무 사회로 36차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를 가졌다. 국민의례에 이어 3년간 회장직을 맡아 일한 석영균의 인사말과 사업보고, 결산보고에 이어 임원을 선출하였다.

지난 개교 101주년 총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우리 동기회가 총동창회가 주최하는 체육대회를 졸업하는 전역식이 있었다. 밤 10시가 되어서야 석별을 고하는 교례

회를 하였다. 2008년 새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김태홍, 부회장-윤성광, 이성화, 이양조, 직전회장-석영균, 총무-조정규, 문화부장-이창식, 회관관장-설춘수, 부관장-임병용, 감사-서석구, 한영기

◆ 제50회

△회장 : 윤종욱

△총무 : 이석순

무자년을 맞이하여 신년회 모임을 2월 24일 시내 영남빌딩에서 성대히 치루었다. 바쁘신대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하여 지난해 모교 체육대회 이후 처음이다.

지난 일, 앞으로의 일들을 이야기하며 술잔을 서로 권하고, 앞으로 동창회 발전을 위해 각자 서로 노력하기로 다짐하며 4월 총회때 다시 만나기로 기약하고 작별인사를 나누었다. 특히 이날의 모든 경비는 프로소닉 한진호 회장이 부담하여 모인 동기들로부터 박수 갈채를 받았다.

여의치 못해 참석하지 못한 동기 여러분들은 다음부터 빠짐없이 참석하여 동기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

◆ 제52회

△회장 : 서창국

△총무 : 박상태

지난 1월 29일 자금성에서 서창국 회장, 박상태 총무 등 다수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계성 52회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2008년도 서울·부산 지부장을 선출하여 서울지부장 명청렬 동기, 부산지부장 노영택 동기가 수고해 주기로 하

였다.

계성 52회 산우회는 지난 1월 26일 팔공산 청소년수련원에서 안상태 회장, 최상철 총무 등 다수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52산우회 시산제’를 개최하였다.

◆ 제53회

△회장 : 김영수

△총무 : 이형환

2008년도 정기총회가 지난 1월 30일 덕영치과 빌딩 7층 연회장에서 김석준 총동창회 부회장, 총동창회 김경길 사무국장, 동기회원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특히 이날 2008년도 동기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회장에 김영수, 총무에 이형환 동기가 선출되었다.

◆ 제54회

△회장 : 김신길

△총무 : 우진권, 최정태

지난 12월 7일 18시 30분 제이스관광호텔에서 개최된 2007년도 동기회 총회에서는 정대현 회장에 대한 총동창회장의 공로패 수여와 56회 김석준 총동창회 부회장의 축사에 이어 동문 부부동반 송년 행사를 성대히 거행하였다.

이어서 2008년도 동기회를 인도할 동기회장에 김신길 동문, 감사에 이광준, 정태우 동문이 선임되었다.

2007년도 정대현 회장 및 집행부, 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신임 김신길 회장, 이광준, 정태우 감사에게 축사를 보낸다. 총회 참석은 동문 48명, 부인 27명, 내빈 2명, 총 77명이 참가하여 성황

을 이루었다. 행사 마감후 2007년도 동기회 이사회에서 준비한 고급찬통 1세트와 이태영 동문이 기증한 2008년도 캘린더 1부씩을 증정하였다.

◆ 제55회



△회장 : 김태호

△총무 : 박수환

지난 12월 13일 호텔에어포트 사파이어홀에서 송년의 밤 행사를 성대히 개최하였다.

◆ 제56회

△회장 : 이충로

△총무 : 최돈문

지난 1월 25일 자금성에서 다수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도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를 개최하였다.

◆ 제57회

△회장 : 이성하

△총무 : 조기태

2007년도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가 지난 12월 7일 봉덕동 가든호텔에서 개최

되어 2007년도 결산 및 사업보고를 하고 2008년도 신입회장을 선출하였다.

◆ 제58회



△회장 : 엄재길

△총무 : 이승현, 정종인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가 지난 7월 수성관광호텔에서 총동창회 사무국장인 김정길(56회) 선배와 국회의원 김석준(56회) 선배를 모시고 80여명의 동기들과 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개최하였다. 특히 이날 2008년도 동기회를 이끌어갈 새집행부를 선출하였다.

회장 : 엄재길(와룡고 교장) 011-542-6508, 총무 : 이승현(LIG손해보험 자평대리점 대표) 011-9575-0200, 총무 : 정종인(자연과학고 교사) 016-528-5411, 감사 : 이종희(대구은행 주택금융본부장, 신명릉(세무사))

2008년도 신년교례회 및 정기총회가 80여명의 동기들이 참석한 가운데 1월 21일 그랜드호텔에서 개최하였다.

◆ 제61회

△회장 : 박용배

△총무 : 배영호

2007년도 정기총회와 송년의 밤 행사가 지난 12월 5일 느티나무 마당 레스토랑에서 개최되어 2007년도 사업보고, 결산보고, 2008년도를 이끌어갈 신입회장을 선출하였다.

신입회장에 박용배 동기, 총무에 배영호 동기가 유임되었다.

◆ 제62회



△회장 : 김형모

△총무 : 광정오

지난 12월 1일 세인트웨스턴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하여 2008년도 신입회장에 김형모, 총무에 광

정오 동기를 선출하였다.

◆ 제63회



△회장 : 손종아

△총무 : 이성율

2007년도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가 12월 8일 그랜드호텔에서 80여명의 동기(가족포함)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하여 2008년도 신입회장에 손종아 동기를, 총무에 이성율, 수석부회장에 김은철 동기를 선출하였다.

또한 63회 동기회는 지난 1월 28일 38명의 동기들이 모여 이한성 동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였다.

지난 2월 15일 영남별장에서 27명의 동기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도 신년교례회 및 1/4분기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 제64회



△회장 : 정봉남

△총무 : 심규일, 김종완

지난 11월 24일, 25일 1박 2일간 경주 힐튼호텔에서 졸업 30주년기념 동기의 밤 행사를 모교 은사님 9분과 동기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다.

2007년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는 범어동에 위치한 사랑채에서 12월 28일 개최하였다. 2008년 신년교례회는 1월 25일 수성구 행복날 날 한정식당에서 개최하여 2008년도 신입회장에 정봉남 동기를, 수석부회장에 김형태, 부회장에 박성근, 정민철, 이호성, 허인태, 감사에 한학동, 송창동 동기를 선출하였으며, 총무에는 심규일, 김종완 동기를 선출하였다.

◆ 제65회

△회장 : 구자일

△총무 : 서태교

지난 12월 8일 유성스포츠 플라자 7층에서 개최되었던 송년회는 그야말로 어느

때보다도 많은 동기들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서태교 수석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1부에서 우선 김진걸 영총(?)이 나와서 식사하기 전에 전체 동기를 일일이 거명하면서 테이블 별로 소개를 하였다.

구자일 회장은 많은 동기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어 준데 대해 감사를 표명하고 자신의 임기동안 공약한 사안들을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진행상황을 소상히 설명하였다. 특히 주소록 파악에 역점을 두어 각반 총무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힘입어 거의 600여명에 가까운 주소록 파악을 달성하는 위업을 이루어 내었고, 이는 내년에 있을 30주년 행사의 밑거름이 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반장회 및 각종 동호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활성화 되어 동기기 행사를 이끌어 가고 있다고 자평하였다.

곧이어 회칙 심의에 들어가서 차기회장부터는 임기를 일년으로 줄이는 것에 동의하여 통과시켰다.

아울러 정규화 동기를 수석부회장으로 단독 추천받아서 차기 회장으로 선임하기도 하였다. 내년 하반기에 미국으로 유학(?)차 안식년을 떠나는 박영태 재무총무에게 동기기회에서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서울의 남병헌 고문은 서의택, 변대근, 남철우 동기와 더불어 송년회를 축하하고 함께 하기에 왔다가 소정의 격려금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2부에서는 임익선 동기의 보리밭을 열창하면서 시작되었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스스로 나와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함께 즐기고 노래하는 가운데 시간은 마칠 시간이 되어 11시 쯤 되어서야 모든 공식 행사를 마치고 아쉬운 작별을 고했다.

◆ 제67회



△회장 : 공정섭

△총무 : 장동식

지난 12월 15일 자금성에서 41명의 동기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하여 신입회장으로 공정섭 회장이 유임되고 집행부 구성은 일부만 변경하기로 하였다.

◆ 제69회

△회장 : 정한상

△총무 : 황종일, 신승철

지난 2월 21일 뉴영남호텔에서 200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008년도 동기회를 이끌어갈 새 집행부를 선출하였으며, 신입회장에 정한상 동기, 감사에 김정구, 김진용 동기, 총무에 황종일, 신승철 동기가 수고해 주기로 하였다.

또한 69산우회는 총동창산우회 3월 백아산 정기산행에 다수회원이 참가하였다.



◆ 제70회



△회장 : 김우철

△총무 : 박준석, 최동환

2007년도 정기총회를 12월 8일 그랜드호텔에서 부부동반으로 모임을 하여 동기 70명 부인 30명 총 100명이 참석하여 성대하게 송년모임을 가졌고, 2008년도 흙커밍 추진위원장으로 김우철 동기를 선출했다.

2008년 2월 29일 자금성에서 흙커밍 추진위원단 16명이 참석을 하여 1차 회의 모임을 가져 연간행사 일정(안)을 계획하였으며, 3월 8일 그랜드호텔에서 Homecoming Day의 취지를 알리고, 성공적으로 치루고자 흙커밍 발대식을 가졌다. 동기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관심 바란다. 70회 동기기 Homecoming 임원은 다음과 같다.

▷추진위원장-김우철 ▷홍보-박준석, 조현영 ▷기획-김한덕, 최동환 ▷섭외-신대수 ▷재정-김왕진

◆ 제72회

△회장 : 석근규

△총무 : 김기영, 박병철

지난 12월 1일 그랜드호텔 별관 1층 연회장에서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하여 2008년도 신입회장에 석근규, 총무에 김기영, 박병철 동기를 선출하였다.

인물정



▷박성진(42회) 영신고 교장은 제21회 대구교육상 시상식에서 중등교육 부문 대구교육상을 수상하였다. 박 동문은 EBS 교육방송을 방과후 교육 활동에 도입해 학력 향상에 큰 성과를 거둔 공로를 인정받았다.



▷장영철(42회) 전 국회의원인 1월 10일 영진전문대 학장으로 취임하였다. 영진전문대는 1월 8일 30년 동안 대학을 이끌어온 최달곤 학장이 9



일 퇴임하고, 후임으로 장 전 의원이 선임됐다고 밝혔다. 장 동문은 칠곡 출신으로 3선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노동부 장관·노사정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05년부터 영진전문대 석좌교수로 일해왔다.



▷김용진(45회) 김 동문은 2007년도 KBS국악대상 특별공로상을 수상하였다. 김 동문은 한양대음대 학장, 교육대학원장, 세종

문화회관사장등을 역임했다.

현재 사단법인 한국음악인협회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다.



▷김광원(46회) 한나라당 국회의원인 김 의원은 2월 4일 “좌파정권이 되진하고 실용적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시점에 안심하고 물러날 수 있게 됐다”며 오는 4·9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국민 섬김의 정치에 머리를 싸매야 할 때에 공천지분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저는 조용히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계파로 가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천, 강릉, 포항시장, 경북부



지사를 지낸 뒤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에서 내리 3선했다.

▷김봉식(49회) 한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 회장(영남대 디스플레이화학공학부 교수)은 11월 15일 1시30분 영남대 국제관 3층 대회의실에서 “신재생 에너지”란 주제로 제7회 화학산업진흥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백창곤(50회) 대구 EXCO를 현재와 같은 성장계도에 올려놓았다고 평가받는 백창곤 대표이사 사장이 2월 14일 사임 의사를 밝혔다.

백 사장은 이날 “위기감속에 EXCO를 맡았지만 대구는 물론 한국전시킨벤션산

업과 대구·경북 발전에 벽돌 한 장을 쌓았다는 기쁜 마음으로 EXCO를 떠난다”고 밝혔다.

백 사장은 EXCO 개관 1년후인 지난 2002년 사장으로 임명돼 6년간 EXCO를 맡아왔다. 퇴임후에는 계명대 경영대학 관광경영학과 부교수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곽홍탁**(51회) 동아미술관 기획전으로 지난해 12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아쇼핑 10층 동아미술관에서 개인전(19일~23일) 및 30여년간 작품을 소장한 소장전(24일~31일)을 가졌다.

▷**차종열**(51회) 경북과학고등학교 교장으로 취임하였다.

▷**조영복**(52회) 지난 12월 31일 모교에서 교사로 봉직하다 명예퇴직 하였다.



▷**이원동**(53회) “청도 군민과 한국우사회의 가교역할로 상설 소싸움장 개장에 힘을 보탬 생각합니다.”

지난해 7월 군수직을 중도 하차한 이원동 전 청도군수가 (주)한국우사회(대표이사 김병진)의 부회장직을 맡았다.

이 전 군수는 1월 17일 청도 상설 소싸움 경기장 민간사업시행자인 우사회의 실무형 경영진 구성 방침에 따라 이날 고심 끝에 부회장직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 전 군수는 1월 21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김종대**(53회) 김 동문이 한나라당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선거 사무실 개소식을 가졌다.(2/18) T.053-651-4377



▷**손진두**(54회) 지난 12월 26일 울진군청 대회의실에서 정년퇴임식을 가졌다.

손 동문은 1976년 울진군 기성면에서 행정공무원으로 처음 시작하여 울진군 산림과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장 등을 역임하였다.

이날 퇴임식에서는 국가사회발전 유공으로 정부포상인 ‘녹조근정 훈장’을 받았으며, 가족으로는 부인과 2남이 있다.

▷**오현수**(54회) 3월 1일자로 대구 오성고등학교 교장으로 승진 발령받았다.

▷**김영대**(54회) 김 동문이 2월 27일~3월 19일까지 대전 비비스페이스에서 김영대 조각전을 개최하고 있다.



▷**오유인**(55회) 제일연마공업(주) 대표는 12월 28일 매일신문 경북동부지역본부 방문, 임직원들이 모은 300만원의 성금을 매일신문 이웃사랑제작팀에 기탁했다.



▷**손영대**(55회) 대구상의 기획조정분과위원회 위원장은 2월 20일 오전 상의에서 ‘2007 회계연도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안)’ 등을 심의했다.

▷**장석준**(55회) 서구청 부구청장으로 근무하던 장 동문이 대구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인사 이동하였다.



▷**이재운**(56회) 서울강남 덕영치과가 강남 네거리로 확장 이전하였다.(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5-13 강남센터빌딩 7층 Tel.02-3420-2845~6)

지난 2월 9일 이 동문이 바둑학회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박찬희**(56회) (주)협립 대표이사는 최근 열린 한국JC특우회 임시총회에서 2008년도 신임 회장에 선출됐다.

▷**박우동**(56회) (주)풍산 전무는 12월 27일 안강공장 신임 공장장에 선임됐다.

군위 출신으로 영남대를 졸업한 박 공장장은 지난 1976년 (주)풍산에 입사한 뒤 안강공장 생산본부장, 동래공장장 등을 역임했다.



▷**김석준**(56회) 한나라당 대구 달서병 국회의원은 NGO선정 4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 및 2007년도 법안발의 최다, 법안통과 최우수 의원에 선정되었다.

▷**안영기**(57회) 1월 8일부로 부산시 건설본부장으로 취임하였다.



▷**김춘수**(58회)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장 사장으로 승진하였다.



▷**윤석용**(58회) 오는 4월 9일 치러지는 18대 총선 강동을 선거구 한나라당 후보로 최종 공천 받았다.

▷**박진수**(58회) 에스디건설(주) 부사장으로 승진하였다.(1/2)

▷**이종희**(58회) 대구은행 주택금융본부장에서 부행장으로 승진하였다.



▷**이국희**(58회) 지난 1월 1일자로 경남도 선관위 상임위원에서 대구시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취임하였다.

이 상임위원은 모교, 경북대를 졸업한 뒤 대구시 선관위 사무국장, 경남도 선관위 상임위원을 역임했다.



▷**김동규**(58회) 영남대 스포츠과학대학원장은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대구시 남구 대명동 스포츠대학원 강당에서 ‘한국 프로스포츠 로드맵 2007’

을 주제로 한 추계학술대회를 열었다.

▷**이흥균**(58회) 주식회사 KPC에 부사장으로 승진하였다.

▷**임종수**(58회) 지난 12월말 풍림산업(주)에 부사장으로 승진하였다.



▷**김상준**(58회) 김 동문이 지난 1월 8일 달성군 부구청장으로 취임하였다.

▷**최영욱**(58회) 경북대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실 외래교수가 지난 1월 12일 경산 대경병원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김기웅**(58회) 한국경제TV 사장은 지난해 11월 27일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열린 한양언론인회 송년의 밤 행사에서 회장으로 재선출됐다.

▷**우정규**(58회) 매일신문사 경영지원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우 동문이 2월 22일 제5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었다.



▷**이인기**(59회) 국회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전남 여수시 진남체육관에서 열린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성공

‘국민참여재판 1호’ 주재 윤종구(69회) 부장판사

“예전에는 피고, 원고가 공판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진 모범적인 공판이었습니다.”

사상 첫 국민참여재판을 주재한 윤종구 대구지법 부장판사(형사11부)는 13일 “이번 재판에서 검사와 변호인 측은 배심원을 설득하기 위해 최대한 쉬운 용어를 썼다.”며 “재판다운 재판이었다.”고 말했다.

윤 부장판사는 배심원들이 내린 판단을 존중했다고 말했다. 그는 “‘존중한다’는 뜻은 직업법관이 아닌 배심원들이 내린 유·무죄 판단, 양형이 재판부가 생각하는 범위에 있다는 의미”라며 “배심원들의 평의과정을 보지는 못했지만 고심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법관들도 양형을 결정하기 전에 가족, 동료 등 주변에 의견을 묻기도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이런 과정들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더욱 바람직 하죠.”



그는 배심원들의 ‘감성에 호소하는 재판 방식이 양형을 왜곡시키지는 않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재판부에서도 배심원들에게 양형의 범위를 제시해주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될수록 그 폭을 벗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배심원들에게 사전에 재판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예단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선변호인에게 보통 재판의 몇 배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줘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부장판사는 “우리보다 40여 년 먼저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한 일본이 실패한 이유는 시민들 참여도가 낮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번에 통지서를 받은 시민 230명 중 예상보다 많은 87명이 배심원 후보자로 참석한 것을 볼 때 미래는 긍정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국민 보고대회’에서 명예 여수 시민증을 받았다.

▷**홍재문**(59회) 한국감정원 안동지점장으로 영전되었다.

▷**김우달**(59회) 농협중앙회 포항 해동지점장으로 영전되었다.



▷**김동호**(59회) 한나라당 경북 의성 국회의원 선거 사무실 개소식을 가졌다.(2/2)

▷**정태호**(60회) 농협중앙회 대구지역본부장이 1월 3일 부임했다. 경북 경산 출신으로 모교·경북대를 졸업한 뒤 1985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해 유통조사과, 통상대책 단장, 상주·예천·문경지부장, 농협 경제연구소 등을 거쳤다.

경북대에서 석사, 영남대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정 본부장은 “하나로마트 현대화, 농산물 직거래사업 등의 유통 활성화를 통해 농업인과 소비자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겠다.”며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비해 고객맞춤형 마케팅 강화, 지역에 맞는 차별화 전략 등으로 고객중심 경영관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재권**(60회) 지난 2월 13일 스포츠동아 전무이사로 취임하였다.

▷**박병진**(60회) 3월 2일자로 영남대학교 상경대학 학장으로 취임하였다.

▷**김현규**(60회) 김 동문이 경영하는 (주)토판스는 이노비즈기업인증, 벤처기업 재확인, 부설연구소 설립등록 등으로 대외적으로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김 동문은 세계인명사전인 「Marquis Who's Who in Science and Engineering」, 2008-2009년도 판에 등재되었다.

▷**정태수**(61회) 농촌공사 철곡지사장으로 부임하였다.

▷**정순구**(61회) 서울특별시 국장에서 감사관으로 영전되었다.

▷**최봉환**(61회) 한국도로공사 강원지역본부장으로 취임하였다.

▷**박인규**(61회) KT경영윤리실장으로 취임 발령받았다.

▷**박건현**(61회) 신세계 이마트 죽전점에서 본점장으로 취임 발령받았다.

▷**한기영**(61회)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영업본부장으로 1월 22일 부임했다. 김 천 출신으로 모교와 고려대를 졸업했으며, 1981년 신용보증기금에 들어와 보증심사팀장, 대구서·삼성지점장, 신용보증부장, 영업부장 등을 거쳤다.

외환위기 당시 각종 특별보증제도, 전자상거래 보증제도, P-CBO 보증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보증제도 기획에 있어서 남다른 능력을 발휘했다.

▷**김진규**(61회) 농협 경북본부에서 구미시 지부장으로 승진 전보되었다.

▷**김근호**(62회) 금오고등학교 교감으로 발령받았다.

▷**김승환**(62회) 롯데월드 마케팅 담당 상무로 영전되었다.

▷**김창수**(62회) 울산 현대중공업 부장에서 상무보로 승진하였다.



▷**송승호**(62회) 청와대 대통령실 경제비서관으로 내정되었다.(2/23) 그동안 중소기업청 창업벤처 본부장을 역임하고 최근 대통령인수위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민학기**(62회) 전 수원지법 판사는 18대 총선 용인(을) 한나라당 예비후보 선거 사무소 개소식하였다.(2/16) ☎ : 031-261-6658

▷**박주환**(62회) 한국원자력연구소 안전연구부장으로 승진하였다.

▷**박해주**(62회) 1월 1일자로 대구광역시 교육청 교육시설과에서 서기관으로 승진 발령 받았다.

▷**신진희**(62회) 대구은행 본점에서 월배지점 영업부 부장으로 승진하였다.(12/31)

▷**이성재**(62회) 농협 성수역지점장으로 전보되었다.

▷**이윤원**(62회) '화학생명 심사 본부장'으로 재직. 정부에서 수여하는 일반직 고위 공무원중 탁월한 업무수행 능력을 인정 받아 '홍조 근정 훈장'을 수상. 현재는 특허청 심사원의 수석 심판장으로 영전되었다.(12/31)

▷**정광유**(62회) 신용보증기금 안산지점에서 부산본부 채권 1팀장으로 승진 발령받았다.(1/21)

▷**김태웅**(62회) ㈜울트라보드 대표는 창업대상 산업자원부 장관상 수상기념으로 우수창업관에서 전시회를 개최하였다.(11/15)

▷**우경수**(62회) 창원대학교 학장은 과학문화인상 선정 과학기술부총리상을 수상하였다.(11/16)

▷**이중우**(62회) 2월 4일 해양대학 공과대학장으로 취임하였다.

▷**김경식**(63회) 농협대구지역본부 중앙지점 팀장으로 영전하였다.(1/23)

▷**김정환**(63회) 우리은행 지점장에서 강북영업본부장으로 승진하였다.(12/17)



▷**이재환**(63회) 이명박 대통령 취임 축하 준비 전 문위원으로 맹활약 하였다.



▷**권형우**(63회) 한국공항공사 감사는 18대 총선 대구 달서구 을 선거 사무소를 개소하였다.(3/5)

권 동문은 <느티나무>에 이은 자신의 두번째 테마에세이집 <아름다운 동행>(도서 출판 외침)을 출판. 세계인과 함께, 대구시민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꿈꾸는 권 동문의 따뜻한 이야기는 세계인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대구경제의 발전적 대안 모색, 1조 9000억 대구 육상대회 어떻게 치러야 하는가? 태안반도에서, 북경에서, 동티모르에서, 미얀마에서의 아름다운 동행을 담고있다.



▷**이한성**(63회) 오는 4월 9일 치러지는 18대 총선 경북 문경·예천 선거구 출마를 위해 경남 창원지점 이한성(사시 22회) 지점장이 대검찰청에 사직서를 제출, 1월 18일 퇴임하고, 1월 28일 문경시 점촌동에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가졌다.(선거 사무소 : 문경시 점촌동 245-20 2층 ☎054-555-0100)

▷**김대식**(63회) 1월 7일자로 국민은행 울진 지점장으로 취임하였다.

김 동문은 1982년 국민은행에 입사하여 1990년 12월 울진지점 개설 준비위원으로 울진에서 잠시 근무하였으며, 이번에 지점장으로 발령받게 되었다.(연락처 : 054-783-1101)

▷**김중학**(63회) 대구MBC 편집부장에서 정경부장으로 영전하였다.(1/2)

▷**도기만**(63회) 대구상공회의소 부장급으로 승진, 통상진흥팀장에서 전자상거래지원단 부단장으로 영전하였다.

▷**변기식**(63회) 요진산업 이사에서 상무로 승진하였다.(1/2)

▷**정의정**(63회)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사무관승진시험에 합격하였다.

▷**최상록**(63회) 농협대구지역본부 중동지점장으로 영전하였다.(1/23)

▷**기세희**(64회) 천내중학교에서 교동중학교 교감으로 취임하였다.



▷**김연호**(64회) 김 변호사는 제18대 총선 구미 을 선거구 선거사무소 개소식 하였다.(1/26) (구미인의동)

▷**이병환**(64회) 경상북도 영주 부시장으로 발령받았다.

▷**이인하**(64회) 대구교육청 장학사에서 대곡중학교 교감으로 취임하였다.

▷**이형진**(65회) 삼성그룹의 '자랑스런 삼성인' 상을 수상하였다.(1/9)



▷**박해식**(65회) 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예비후보 (구미 을 선거구) 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1/25)

▷**김운곤**(66회) 57사 221연대 연대장 취임하였다.(12/14)

▷**서상언**(66회) 제일은행 경기도 백석지점장에서 서울 가산동지점장으로 영전하였다.(2/1)



▷**현경병**(68회) 현 동문은 제18대 총선 한나라당 노원갑 선거구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하였다.

▷**장석명**(69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던 장 동문이 새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국정기획 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영전되었다.

◆ 축하드립니다.

▷**김영일**(45회) 장남 결혼(10/28)
▷**장호건**(49회) 장남 결혼(1/12)
▷**이위부**(49회) 자녀 결혼(1/12)
▷**신태웅**(49회) 자녀 결혼(1/26)
▷**조정규**(49회) 자녀 결혼(1/27)
▷**김청길**(49회) 자녀 결혼(2/16)
▷**김기표**(53회) 장남 결혼(12/8)
▷**신재학**(53회) 장남 결혼(12/9)
▷**김문곤**(53회) 장녀 결혼(12/9)
▷**김유석**(53회) 장녀 결혼(1/6)
▷**김창호**(53회) 자녀 결혼(2/17)
▷**정갑동**(53회) 장녀 결혼(1/26)
▷**이재영**(54회) 장녀 결혼(11/10)
▷**김선동**(54회) 장남 결혼(11/17)
▷**정양수**(54회) 장녀 결혼(11/18)
▷**황찬서**(54회) 장녀 결혼(11/23)
▷**이동준**(54회) 차녀 결혼(11/24)
▷**손인규**(54회) 차녀 결혼(12/8)
▷**윤공성**(54회) 장남 결혼(12/9)
▷**문상운**(54회) 장녀 결혼(12/9)
▷**구본만**(54회) 차녀 결혼(12/9)
▷**권광인**(54회) 장남 결혼(1/26)
▷**박기원**(54회) 장남 결혼(1/26)
▷**박판석**(54회) 장녀 결혼(2/24)
▷**배순흠**(54회) 자녀 결혼(12/22)
▷**허희오**(54회) 장녀 결혼(3/2)
▷**최준식**(54회) 베트남에 섬유공장을 확장 이전하였다.

▷**노경호**(55회) 자녀 결혼(3/8)
▷**윤태석**(55회) 자녀 결혼(11/25)
▷**최정복**(55회) 자녀 결혼(11/24)
▷**한창조**(55회) 개인세무사 사무실을 개업하였다.(2/27) T.031-343-3000

▷**유대준**(56회) 장녀 결혼(10/28)
▷**차소영**(56회) 장남 결혼(11/10)
▷**이재우**(56회) 차남 결혼(1/6)
▷**황기철**(56회) 장녀 결혼(1/6)
▷**신영태**(56회) 차남 결혼(1/19)
▷**김찬수**(56회) 장녀 결혼(1/19)
▷**김태선**(58회) 장남 결혼(2/24)
▷**김현길**(58회) 자녀 결혼(12/22)
▷**박병환**(58회) 자녀 결혼(2/23)
▷**우정규**(58회) 자녀 결혼(12/8)
▷**박현규**(59회) 장녀 결혼(12/22)
▷**인재현**(59회) 자녀 결혼(12/29)
▷**윤지현**(59회) 자녀 결혼(12/9)
▷**이강달**(59회) 자녀 결혼(12/9)
▷**박래삼**(59회) 마사이 워킹센터(MBT)을 개점하였다.(경주시 서부동 254-17 중 앙시장 T.054-742-0541)
▷**이재실**(59회) ZISHEN 의정부점을

개업하였다.(2/29)(경기도 의정부1동 176-8 Tel.031-841-6833)

▷**김경준**(61회) 자녀 결혼(1/27)

▷**장승엽**(61회) 자녀 결혼(12/8)

▷**김 홍**(61회) 국내 굴지의 건설분야 글로벌기업인 '르호봇그룹' 임원 공개모집에 합격하였다.(12/10)

▷**오유석**(61회) 열린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업하였다.(2/16)(대구시 남구 대명10동)

▷**김진익**(62회) 자녀 결혼(12/22)

▷**조영욱**(62회) 동산정형외과의원 원장인 조 동문이 경남 진해시에서 금번 마산시 내서를 호계리로 병원을 이전하여 개업하였다. ☎055-232-7668,7694

▷**구영석**(63회) 장녀 결혼(12/8)

▷**김상길**(64회) 자녀 결혼(1/20)

▷**김진길**(65회) 안동생고기 개업(1/14). (TBC뒤 두 번째 골목)

▷**곽정환**(69회) 곽 동문이 경영하는 코웰이홀딩스가 국내증시에 상장하는 세번째 외국기업이 되었다.

▷**김정훈**(71회) 동호지구 우리은행 3층에 '영수학원 시스템 스쿨'을 오픈하였다.

▷**여인성**(71회) 성서에서 왜관으로 공장을 신축하여 일부 사업부를 이전하였다.

▷**황창구**(71회) 구미역 앞 구미 귀금속 백화점 내에 「화인골드」를 오픈하였다.

▷**윤정보**(71회) 동우이앤씨 이사로 승진하였다.

▷**남홍대**(72회) 파리바게뜨(파동점)을 개업하였다.(12/11)

◆ 참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최원식**(23회) 별세(2/9)
▷**김우홍**(45회) 모친상(1/3)
▷**이상성**(45회) 별세(12/9)
▷**이종생**(45회) 부인상(12/14)
▷**윤희상**(45회) 모친상(12/18)
▷**김병준**(45회) 모친상(1/17)
▷**이동한**(45회) 장모상(2/15)
▷**황광일**(49회) 부인상(1/18)
▷**서재덕**(53회) 부친상(1/21)
▷**최진영**(53회) 부친상(2/13)
▷**김복수**(54회) 모친상(11/7)
▷**이상호**(54회) 부친상(11/13)
▷**이동수**(54회) 부친상(11/17)
▷**박창환**(54회) 부친상(1/26)
▷**이태호**(54회) 별세(2/11)
▷**서태윤**(54회) 부친상(2/28)
▷**김종욱**(55회) 모친상(12/21)
▷**김찬석**(55회) 모친상(12/30)
▷**김후석**(55회) 장인상(11/1)
▷**서성권**(55회) 모친상(2/24)
▷**윤웅희**(55회) 장인상(11/7)
▷**정현기**(55회) 장인상(12/6)
▷**최창식**(55회) 모친상(1/13)
▷**한창조**(55회) 장모상(1/11)
▷**신무식**(56회) 별세(1/6)

따뜻한 정성에 감사합니다.

동창회보 46호 15면에 실린 '동문 여러분의 따뜻한 정을 기다립니다'란을 읽고 54회 동기회에서 성금 50만원을 전달하였다.

정대현(54회) 회장은 15일 영천시 금호읍 오계리에 살고 있는 최상도 동기집을 방문하여 지난번 동기 총회시 모금한 성금을 전달하였다.

최상도 동기는 25세부터 시력을 상실하여 현재 독신으로 혼자 살고 있으며, 태어난 고향 집에서 장애수당과 생활보호 대상 연금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3남 3녀의 장남으로 태어나 모교(3학년 4반)를 졸업하고 영남대학 상대

▷**김익환**(56회) 모친상(2/14)
▷**사공영**(56회) 부친상(2/23)
▷**권기익**(58회) 모친상(1/30)
▷**이인기**(59회) 모친상(12/29)
▷**윤석문**(59회) 부친상(11/10)
▷**임주재**(59회) 장모상(2/24)
▷**최동규**(59회) 모친상(11/19)
▷**강대욱**(61회) 모친상(1/21)
▷**곽영재**(61회) 모친상(12/12)
▷**구장희**(61회) 장모상(12/25)
▷**서대수**(61회) 부친상(1/22)
▷**이태성**(61회) 부친상(1/15)
▷**배영호**(61회) 모친상(3/10)
▷**진철찬**(61회) 모친상(10/31)
▷**김중기**(62회) 부친상(2/8)
▷**박상길**(62회) 장인상(12/28)
▷**원종락**(62회) 부친상(2/27)
▷**이광운**(62회) 장인상
▷**이재혁**(62회) 모친상(12/17)
▷**황기선**(62회) 장인상(1/4)
▷**민병태**(63회) 부친상(11/24)
▷**이동철**(63회) 부친상(12/12)
▷**조영범**(63회) 모친상(12/21)
▷**하형곤**(63회) 부인상(1/14)
▷**최종일**(63회) 부친상(2/9)
▷**김춘호**(63회) 모친상(2/19)
▷**김 훈**(63회) 장모상(2/26)
▷**이병환**(64회) 부친상(11/5)
▷**방진우**(65회) 장모상(11/14)
▷**서정무**(65회) 모친상(12/6)
▷**박 철**(65회) 조모상(1/21)
▷**신옥경**(65회) 모친상(1/30)
▷**권양환**(65회) 부친상(2/14)
▷**정기철**(65회) 부친상(3/2)
▷**강영도**(66회) 모친상(2/12)
▷**권 삼**(67회) 모친상(1/29)
▷**리종덕**(67회) 별세(11/17)
▷**이종환**(67회) 부친상(10/28)
▷**최우섭**(67회) 모친상(1/6)
▷**김한덕**(70회) 부친상(12/16)
▷**박상훈**(70회) 모친상(2/11)
▷**박인태**(70회) 부친상(11/6)
▷**박준석**(70회) 장모상(12/20)
▷**오범탁**(70회) 모친상(11/25)
▷**윤거한**(70회) 별세(2/24)
▷**조수관**(70회) 부친상(1/22)
▷**최문덕**(70회) 모친상(2/23)
▷**최상덕**(70회) 장모상(12/26)
▷**홍성희**(70회) 장인상(11/26)
▷**황대일**(70회) 부친상(2/2)
▷**김영훈**(71회) 빙부상(1/16)
▷**남효갑**(71회) 부친상(11/30)
▷**박준형**(71회) 장모상(12/20)
▷**이진기**(71회) 장모상(2/18)
▷**조성익**(71회) 부친상(2/5)
▷**강병철**(72회) 모친상(1/4)
▷**손성욱**(72회) 부친상(1/1)
▷**윤상조**(72회) 부친상(1/22)
▷**최병현**(72회) 부친상(2/15)
▷**황경순**(72회) 부친상(12/16)

경영학과를 졸업하던 해에 뇌종양이 시신경을 자극하여 시력을 완전 상실하여 지금은 부모님과 다 돌아가시고 형제들이 가끔씩 들리는 정도로 혼자 외로이 살고가고 있다.

다행히 뇌종양은 성장이 중단되어 몸은 건강하여 혼자 취사와 집정리는 스스로 잘 하고 있으며 성격이 밝고 처신을 만족해 하며 하루 하루를 즐겁고 바쁘게 살고가고 있다.

동기들의 성금에 너무 감사하며 장애 수당과 생활보호 수당 40만원으로도 생활이 충분하다고 오히려 우리들의 염려를 안심시켰다. 앞으로도 동문 여러분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간 소개

이수남(50회) 동문의
일곱번째 창작집 『심포리』 출간

모교에서 후배들을 가르치다가 명예 퇴직한 소설가 이수남(50회) 동문의 일곱 번째 창작집 『심포리』가 출간되었다.(고문당, 1만원)

1964년 제2회 매일문학상과 1970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문단에 등단한 이동문은 그 동안 창작집 「木馬와 마네킹」(1979), 「바람개비」(1984), 「都市의 끈」(1992), 「숲은 바람에 흔들리고」(1996), 「어안렌즈 밖의 男子」(2000), 「탈」(2000)과 소년소설집 「엄마, 거기 있잖아요」(1997), 문화비평서 「토함산과 메뚜기」(1997)를 출간했고, 대구문학상(1988), 대구시문화상 문학부문(2000), 국제펜클럽 대구아카데미문학상(2004)을 수상했으며, 계성총동창회 사무국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8년만에 출간된 이동문의 새 창작집 『심포리』에는 표제작인 「深浦里」를 비롯하여 「大邱線」, 「두류산」, 「바람·소리」, 「경주 떠나다」, 「나, 동리 金昌貴」, 「기적소리 따위에 대한 명상」, 「未明」, 「요나의 나무」, 「후박나무에 떨어지는 빛소리」, 「아버지의 귀」, 「長項線」, 「턱뼈의 언덕」 등 모두 13편의 소설이 실려 있다.

이 동문의 창작집을 읽기 전에 미리 그의 소설 세계에 대한 전문가의 안내를 받아본다.

“이수남은 단순하고 간단한 일상의 이야기에 깊이의 묘미를 감추는 이야기꾼이다. 그의 문체는 유연하고 함축적이면서 여백의 감칠맛을 여운으로 남긴다. 아울러 등장하는 사람들은 체온 녹이기를 갈망하는 서민들이다. 오늘날의 소설 풍토에서 시류에 동떨어진 소재들에 애정과 사랑을 쏟음으로써 또 다른 고독의 문을 외면하지 않는 따스함을 갈망하는 작가로 보인다.”-蔡洙永(문학평론가)

“이수남의 많은 언어는 암시와 비약, 혹은 반복, 생략과 같은 시적 요소들로 가득하다. 묘사와 설명, 비교와 분석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산문적 요소가 극도로 절약되고 있다. 그는 산문의 정상적 기능을 비틀어 버림으로써 행위 자체를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해석하는 작가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할 것이다.”-권국명(시인)

“이수남의 소설이 경험적 사실에 비교적 충실하다는 점은 그가 인식의 치열함보다 감성적 직관에 의존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의 소설이 언어로 재창조된 현실의 상징태로서 문화적 의미를 가지기 보다 오히려 현실을 언어로 직조한 상징적 현실태로서 의미함을 지닌다. 이러한 방향은 현실을 보다 정확히 인식하고 삶의 조건과 인간 존재의 한계를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데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다.”-김양현(문학평론가)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글대는 실개천이 회돌아 나가고,
얼룩백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 그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뒤편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조름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짚벼개를 돌아 고이시는 곳,

- 그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

흙에서 자란 내마음
파아란 하늘 빛이 그림어
함부로 쓴 화살을 찾으려
풀섣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든 곳,
- 그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

傳説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의와

아무리치도 않고 여쁠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안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지고 이삭 줏던 곳,
- 그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

하늘에는 석근 별
알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집웅,
흐릿한 불빛에 돌아 앉아 도란 도란거리는 곳,
- 그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

정지용 <鄉愁> 전문

우리 나라 국민이라면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빠짐없이 배운 정지용 시인의 절창 <향수>이다. <향수>는 노래로도 많이 애창되고 있다. 정지용의 시세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서가 출간되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저자는 61회 동문인 손병희 안동대 국문과 교수. 손 동문의 역저 <정지용 시의 형태와 의식>을 소개한다.



『정지용 시의 형태와 의식』



안동대 국문과 교수인 손병희 동문의 새 저서 『정지용 시의 형태와 의식』이 출간되었다.(국학자료원 간, 288쪽, 2만원)

이 책이 분석한 것은 저서의 이름 그대로 ‘정지용 시의 형태와 의식’이다. 시 형태 역시 형태화한 의식의 한 양상인 까닭에, 이 글의 집중적인 관심은 정지용 시에 내재한 의식의 분석에 있다.

정지용 시의 내적 의식 분석을 통해 이 책에서 밝히고자 한 것은 정지용의 시가 분열의 텍스트라는 사실이다. 계기적인 전체로서 혹은 개별 텍스트로서 정지용의 시에는 엇갈린 지향과 욕망이 공존하면서, 그 사이를 왕래하는 의식의 분열과 다양한 움직임이 다채롭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분열된 욕망과 미의식은 정지용의 시를 분열의 텍스트로 만들지만, 그것은 동시에 정지용의 시적 창조에 일정한 동력을 제공한다.

이러한 점을 구체적으로 해명하기 위해 텍스트에 좀더 밀착한 읽기와 분석을 시도하고, 시가 언어이자 발화이며, 발화의 한 양상인 담론인 동시에 텍스트라는 관점을 원용했다.

이 책은 정지용의 시를 분열의 텍스트로 이해하는 지은이의 박사학위논문을 출간한 것이다.

손 동문은 ‘제목 일부를 수정하고 눈에 띄는 오타자를 바

로 잡으며, 미흡한 점은 그것대로 새로운 모색을 위한 거울로 삼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아래는 저서 낱개에 손 동문이 넣은 글이다.

‘정지용의 시는 분열의 텍스트다. 정지용의 시가 내장하고 있는 의식은 엇갈린 지향의 공존을 통해 분열하고 있다. 의식의 분열은 시 형태 의식을 비롯하여 자기 의식과 타자 의식, 그리고 상실 의식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이러한 분열은 정지용의 시를 오히려 역동적이고 복합적으로 만들뿐만 아니라 상상과 의미의 공간을 좀더 다층적이고 풍부하게 만든다. 따라서 정지용의 시를 기교와 감각의 향연, 혹은 내면이나 사상성의 결여태로만 이해하는 것은 정지용 시에 대한 일면적인 이해에 지나지 않는다. 여전히 정지용의 시는 더욱 심화된 해석의 가능성을 향해 열려 있다.’

손 동문의 약력과 저서들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경북대학교 문리대와 대학원 수학, 문학박사.
- <심상> 신인상으로 등단, 시인.
- 안동대학교 인문대학 교수(현재)
- 이육사기념사업회 회장(현재)
- 이육사시문학상운영위원(현재)
- 안동대 도서관장, 인문과학연구소장 역임.
- 중국 낙양외국어대학 초빙 교수 역임.
- 『한국현대시연구』(국학자료원, 2003.)
- 『이육사전집』(깊은샘, 2004.)(공)
- 『광야에서 부르리라』(이육사문화관, 2004.)

靑山

푸르른 세상, 청산이 만들어 갑니다.

문명의 발달은 우리에게 잿빛환경을 가져다 준 대신,
아름다운 자연을 추억의 한 곁으로 밀어내었습니다.
저희 (주)청산녹화산업은 시간의 흐름 속에 퇴적되어진
추억속의 자연을 발굴하고 가꾸어 인간과 환경의
유기적 고리역할을 다함으로써 여러분의 생활
한가운데로 자연을 가져다 드리기 위하여 한 그루의
나무, 한 평의 땅에도 청산의 푸른 의지를 담고자 합니다.

사 업 내 용

- 골프장 건설공사
- 골프코스 수목,잔디식재 공사
- 그린,티,벙커 조성공사
- 연못 및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 골프코스 전문관리 용역
- 조경계획 및 시공
- 개인 및 공공조경 계획 및 설계 시공
- (정원,사육,아파트,호텔,공원,도로
- 항만,공항,운동장,위락시설,관광단지 등)
- 비탈면 식생녹화
- 각종비탈면 식생녹화
- 탄광지역 복구녹화
- 임도지역 산림녹화
- 비탈면 슬라이딩 방지 등
- NS 자연암복원공법

주 요 실 적

- | | |
|-----------|-------------|
| -경주조선C.C | -떼제베퍼블릭C.C |
| -제일스포츠C.C | -크리스탈밸리C.C |
| -골드C.C | -스카이힐C.C |
| -제주중문C.C | -디아너스C.C |
| -경주보문C.C | -아네스빌C.C |
| -기흥C.C | -해비치C.C |
| -필로스C.C | -골드레이크C.C |
| -몽베르C.C | -소피아그린C.C |
| -광릉C.C | -정산C.C |
| -에딘버러C.C | -경주C.C(신코스) |
| -스카이밸리C.C | -금강센테리움C.C |
| -케슬파인C.C | -동서울C.C |
| -베어크리크G.C | -청하이스턴C.C |
| -우리G.C | -송라제니스C.C |
| -실크리버C.C | -에덴블루C.C |
| -이스트밸리C.C | -아트밸리C.C |
| -센츄리21C.C | -빛고을C.C |
| -아크로밸리C.C | |



(주) 청 산 녹 화 산 업

CHUNG SAN LANDSCAPE DESIGN & DEVELOPMENT CO.

대표이사 우 만 곤(64회)

주소: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4-21 동화빌딩 301호

TEL:(02)3444-4512

FAX:(02)3444-4513

E-mail:chungsanltd@naver.com



회장 이병구 (53회)
충동창회 부회장

BT

환경에너지 사업

- Cleanroom Design & Engineering
- Cleanroom Component & Equipment
- Cylver Guard Bandage & Mask
- Air/Water Sterilizer

NT

전자재료 사업

- Semi, LCD
 - Process Chemicals : Developer, Color Developer
Nano Strip, Mask Cleaner, Glass Cleaner, Slurry
 - Functional Chemicals : Color Paste, SOG, UHP, Low-K
- Advanced materials : EMC, CMC, Die Attach Adhesive(DAA) Materials
: Silicone materials for LED encapsulation

IT

반도체 사업

- Flip Chip Bumping Foundry
- DDI, TAB(TCP, COF), CSP, ASIC, CIS Bumping
- GaAs wafer
- Coating : ITO, Nano-Ag
- Fabrication : Glass slimming, Sealing

과학과 기술로 미래를 앞당기는 공동체

Organization that brings in the future through Science & Technology

네패스는 '영원한 생명'이란 뜻으로 1990년 설립 되었습니다. 국내 불모지 사업 분야였던 반도체 소재사업을 시작하여 부품사업에 이르기까지 18년 세월동안 남이 가지 않은 길을 묵묵히 개척해왔습니다. 부품·소재 분야 기업에서는 최초의 수상인 은탑산업훈장을 비롯하여 윤리경영대상, 주주가치대상, Asia Pacific Technology Fast 500 등을 수상하였습니다. 최첨단 기술력으로 국내 제조공장 4개사, 해외제조 공장 2개사 및 해외 판매법인 5개로 성장한 네패스는 이제 세계시장에 진출하여 대한민국의 성공 모델이 되겠습니다.

nepes
nepes corporation